

# 동의보감 해수문 16종 해수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이정욱<sup>1</sup> · 이시형<sup>1,2,3</sup>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2.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3. 한국전통의학연구소

---

## Consideration of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16 Kinds of Cough Part in Haesu Chapter of Donguibogam.

Jung-Wook Lee<sup>1</sup>, Si-Hyeong Lee<sup>1,2,3</sup>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ofessional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3.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16 Kinds of Cough Part in Haesu Chapter of Dong-Yi-Bo-Gam and to find out the ideas of Huh Jun(許浚, 1546-1615; the author of Dong-Yi-Bo-Gam) in there.

**Methods:** I compared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16 Kinds of Cough Part in Haesu Chapter of Dong-Yi-Bo-Gam.

**Results:**

1. There is only one quoted sentence which perfectly matches with original text in 16 Kinds of Cough Part in Haesu Chapter of Dong-Yi-Bo-Gam. The other sentences are all modified while they are quoted by Huh Jun, at least one word.
2. The arrangement order of 'medical effect', 'consisting medicines and their dosages' and 'doctrine in application' were rearranged following the form of Dong-Yi-Bo-Gam when being quoted.
3. In cases of reciting the text, Huh Jun tries to clarify the original source of the context. However, instead of using original quotations he recited rephrased quotes from other sources.
4. Huh Jun cites from not only cough parts of other texts but also asthma(喘症) or heat(積熱) parts.
5. Titles of original text books are recorded in the end of all sentences of Dong-Yi-Bo-Gam, but there are a few wrong titles recorded.

**Conclusion:**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mentioned, the Dong-Yi-Bo-Gam is not the mere collection of various Oriental Medical books, but the Classic of Oriental Medicine to hold Huh Jun's own opinion.

---

**key words :** *Dong-Yi-Bo-Gam, Haesu*

---

## I. 서론

현대 의학에서 기침은 호흡기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한의학에 있어서도 해수는 감기, 기침과 관련되어 대중들에게 많이 처방된 조문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서양의학에서 기침은 발병하여 3주 미만을 급성기침, 그 이상을 만성기침으로 나누는데, 급성기침의 원인으로는 상기도 감염, 폐렴, 폐색전증, 반복되는 흡인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만성기침의 원인으로는 후비루, 기관지천식, 역류성 식도질환,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약물 유발성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sup>2)</sup>.

한의학에서는咳嗽의 원인을 외적 요인(外感咳嗽)과 내적 요인(內傷咳嗽)으로 나누고 있는데<sup>3)</sup>, 동의보감에서는 外邪에 해당되는 風嗽, 寒嗽, 熱嗽, 濕嗽 등과 內傷에 해당되는 鬱嗽, 勞嗽, 食積嗽, 氣嗽 등을 포함하여 16종류로 해수를 분류하고 있다<sup>4)</sup>.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의 의관 허준(1546-1615, 字는 淸源 號는 龜巖)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로 편찬한 서적이다. 선조 29년(1596년) 왕명으로 儒醫 鄭樞, 太醫 楊禮壽 등과 함께 편찬을 시작하였다가 이듬해 정유재란으로 중단된 뒤 단독으로 편찬을 계속하여 14년만인 광해군 2년(1610년) 모두 25권 25책으로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86종의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참고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식의 실용의서로서 대중의 질병 치료에 큰 업적을 이룩한 것이었다. 이 책의 실용성과 의서로서의 진가가 널리 알려지자

뒤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동양 3국의 의학발달에 기여하였으며, 지금도 질병 치료와 의학연구에 활용되고 있다<sup>5)</sup>.

동의보감은 중국 의학 서적의 단순한 요약으로 평가되기 쉬우나 거기에 수록된 처방들은 허준 자신이 실제 임상을 통하여 효과를 경험한 처방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다<sup>6)</sup>.

대다수의 의서는 본문에 저자의 생각을 밝히거나 혹은 인용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히거나 혹은 안을 써서 저자의 사상을 밝힌 것<sup>7)</sup>에 비해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문장마다 인용 문헌을 밝혔다.

때문에 허준의 의학사상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서 후세학자들은 지금까지 동의보감에 관한 연구를 여러 방면에서 진행하여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준의 생애<sup>8)</sup>, 의학사상<sup>9)</sup>, 동의보감의 편찬 동기<sup>10)</sup>, 역사적 배경<sup>11)</sup>, 서지학적 고찰<sup>12)</sup>,

5) 孫弘烈. 許浚의 '東醫寶鑑'과 한의학의 발전. 한의신문 제 1658호. 2009년 7월 6일. p.14.

6) 정우열. 한송 정우열교수 정년기념 한송논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문회. 2003. p.740.

7) 양준식, 고형근, 진재호, 한웅, 정상훈, 김호, 이동주, 이광규. 東醫寶鑑 부증편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4):943-952.

8)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對한 考察 -出生과 家系를 中心으로. 龜岩學報. 1991;1:73-89.

9) 許津, 朴贊國.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6;9:301-318. 權學澈. 東醫寶鑑을 通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許程. 「東醫寶鑑」의 保健史의 研究. 龜岩學報. 1992;2:67-94.

金洛必. 『東醫寶鑑』의 철학적 기초. 제3의학. 1997;2(2):419-434.

10) 尹暢烈. 東醫寶鑑의 編纂動機와 特徵에 對한 考察. 龜岩學報. 1996;4:33-42.

11) 孫弘烈. 「東醫寶鑑」 編纂의 歷史의 背景. 龜岩學報. 1991;1:28-32.

金滌.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學論.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김호. 許浚의 「東醫寶鑑」 研究. 한국과학사학회지. 1994;16(1):3-30.

12)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진학회지. 1991;5:137-150.

朴慶連. 『東醫寶鑑』의 書誌學的 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하정용. 內醫院字本 研究의 諸問題 - 『東醫寶鑑』 研究를 위한 先行課題-. 醫史學. 2008;17(1):23-36.

이철용. 동의보감 이본들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1) 姜延錫.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鄉藥本草의 處方用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기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7. pp.79-81.

3) 全國韓醫科大學 肺系內科學教室.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도서출판 한 문화사. 2002. pp.149-151.

4) 鄭錫基. 『東醫寶鑑·咳嗽門』의 學術적 특징에 對한 高찰.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변증체계<sup>13)</sup>, 외국의학에 미친 영향<sup>14)</sup>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동의보감 속의 의학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동의보감 인용서적의 원문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는 실제 동의보감 속의 의학 내용에 관한 연구이며, 이는 인용시의 허준의 의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로, 양<sup>15)</sup>, 양<sup>16)</sup>, 이<sup>17)</sup>, 전<sup>18)</sup>, 최<sup>19)</sup>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일부분 혹은 일부 인용 서적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sup>20)</sup>은 동의보감 해수문의 의학이론과 학술적인 특징들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인용서적의 원문과 동의보감 해수문을 비교하였으나 몇 문장만을 예로 들면서 원문과 비교 대조하였다.

서적으로는 동의과학연구소에서 옮긴 동의보감<sup>21)</sup>과, 원이 옮긴 동의보감<sup>22)</sup>이 동의보감의 인

용서적 원문과 동의보감을 비교해놓았으나, 동의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동의보감은 현재 外形篇까지밖에 번역이 진행되지 않았고, 원이 옮긴 동의보감은 범위는 동의보감 전체이나 인용서적 원문과의 비교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이에 저자는 허준의 의학사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의보감 잡병편에 있는 해수문 중에 임상적으로 해수의 실제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16종 해수 부분을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하여 삽입되거나 빠진 문장이나 단어 등의 교감을 통하여 허준의 의학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동의보감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해수의 원인과 진단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 II. 연구방법 및 자료

### 1. 연구방법

본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문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동의보감에 인용된 문구가 원저의 문구와 다를 경우에는 校勘 考察 解釋의 순으로 연구하였다.

1) 원문은 甲戌年(1634) 內醫院 校正 完營 重刊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2) 校勘에 사용된 문헌은 표로 표시하였다. 교감에 인용된 문헌 중 단행본을 구하지 못한 醫學正傳, 世醫得效方, 古今醫鑑 등은 中華醫書集成에서, 醫說, 類證普濟本事方, 仁濟直指 등은 影印文淵閣四庫全書에서 원문을 인용하였다.

3) 원문과 인용문을 비교하여 삽입 또는 탈락한 문구는 “ ”로 표기하였고, 의서명칭은 『』로 하였다.

### 2. 자료

校勘書名 및 略稱

1992;20:5-39.

13) 許津, 洪元植.. 東醫寶鑑의 變證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90;13:345-425.

정우열. 한송 정우열교수 정년기념 한송논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문회. pp.565-636. 2003.

14) 張文宣. 《東醫寶鑑》이 中國醫學에 미친 影響. 龜岩學報. 1993;3:30-39.

許程. 中央아시아 醫學과 東醫寶鑑. 龜岩學報. 1996;4:49-57.

15) 양준석, 고희곤, 진재호, 한웅, 정상훈, 김호, 이동주, 이광규. 東醫寶鑑 부종편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4):943-952.

16) 梁榮坡.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17) 李炳國. 東醫寶鑑 耳·鼻·口舌·牙齒·咽喉門의 黃帝內經 引用部分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18) 전영세, 원진희, 이건업. 東醫寶鑑에 인용된 黃帝內經 素問 · 靈樞에 대한 考察. 한국전통의학지. 2000;10(2):31-114.

19) 최정우, 국윤옥, 정한술, 이광규. 東醫寶鑑 癰疽論(上)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3):627-645.

20) 鄭錫基. 『東醫寶鑑 · 咳嗽門』의 학술적 특징에 대한 고찰.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21) 許浚. 東醫寶鑑(第一卷 內景篇). 서울. 동의과학연구소, 2002.

22)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번호	서명	약칭	비고
1	古今醫鑑	醫鑑	中華醫書集成
2	奇效良方	奇效	
3	丹溪心法附餘	丹心	
4	丹溪醫集	丹心	
5	東垣十書	東垣	
6	類證普濟本事方	本事	影印文淵閣四庫全書
7	萬病回春	回春	
8	世醫得效方	得效	中華醫書集成
9	醫說	醫說	影印文淵閣四庫全書
10	醫學綱目	綱目	
11	醫學入門	入門	
12	醫學正傳	正傳	
13	易簡方	易簡	
14	仁齋直指	直指	影印文淵閣四庫全書
15	千金要方	千金	
16	太平惠民和劑局方	局方	
17	鄉藥集成方	鄉集	

### Ⅲ. 본 론

#### 1. 咳嗽諸證

○ 有風嗽, 寒嗽, 熱嗽, 濕嗽, 鬱嗽, 勞嗽, 食積嗽, 氣嗽, 痰嗽, 乾嗽, 血嗽, 酒嗽, 久嗽, 火嗽, 夜嗽, 天行嗽 通治咳嗽藥. ○ 咳因氣動爲聲嗽 乃血化爲痰 肺氣動則咳 脾濕動則嗽 脾肺二藏俱動 則咳嗽俱作也 『入門』.

#### 【校勘】

『入門』 23)에 “咳因氣動 爲聲 咳乃血化 爲痰 肺氣 動則咳 脾濕 動則咳 脾肺 俱動則 咳嗽俱作”으로 되어 있다.

23)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7.

#### 【考察】

위의 16종 해수 분류는 인용서가 없고, 허준 선생의 처음 사용한 독창적인 해수 분류법이다. 『雜病原流犀燭』은 1773년 清代 주요 醫家 중의 한명인 沈金鰲가 저술한 서적이다.<sup>24)</sup> 『雜病原流犀燭』에서 위의 동의보감 16종 해수 분류를 순서까지 똑같이 그대로 16종을 인용하여 해수를 분류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1610년 허준에 의해 저술되었으므로 이는 동의보감이 중국에 있는 醫家 沈金鰲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校勘은 『入門』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동의보감의 “脾濕動則嗽”가 『入門』에는 “脾濕 動則咳”로 되어있고, “脾肺二藏俱動則咳嗽俱作也”가 “脾肺俱動則咳嗽俱作”으로 되어있다. 『入門』에는 이 문구 바로 뒤에 “然以肺爲主故咳則包嗽在其中”이라 하여 咳가 嗽를 포함하는 것으로도 보았으나 동의보감에서는 咳와 嗽를 구분하는 문구만 인용하고, 咳가 嗽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으며, 원인에 따라 咳와 嗽를 구분하여, 咳와 嗽가 다르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風嗽

○ 風乘肺 則鼻塞聲重 口乾喉痒 語未竟而咳 『入門』. ○ 傷風咳者 脈浮 增寒壯熱 自汗惡風 口乾煩燥 鼻流清涕 欲語未竟而咳 『醫鑑』. ○ 傷風咳嗽 宜神朮散 款冬花散 人參荊芥散[方見聲音] 金沸草散 三拗湯 五拗湯 加減三拗湯 『諸方』.

#### 【校勘】

『入門』 25)에 “風乘肺咳則鼻塞 聲重 口乾 咽痒 語未竟而咳”로 되어 있다.

『醫鑑』 26)에 “傷風咳者 脈浮 憎寒壯熱 自汗惡風 口乾煩燥 鼻流清涕 欲語未竟而咳也.”로 되어

24) 洪元植, 尹暢烈.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441, 442.

25)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7.

26)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4.

있다.

### 【考察】

『入門』의 “咽痒”을 동의보감이 “喉痒”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동의보감<sup>27)</sup>에서咽은 “咽接三脘以通胃”라 하여 식도에 해당하고, 喉는 “喉通五臟以系肺”라 하여 기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도가 가렵다는 의미로 동의보감의 “喉痒”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入門』의 “外因邪氣 隨時 嗽” 조문 하에 있는 문구이다. 『醫鑑』의 경우 동의보감의 “增寒”(불을 증)은 『醫鑑』에서는 “憎寒”(미워할 증)이라 하였는데 憎寒은 惡寒의 의미이며<sup>28)</sup>, “增寒”은 “寒이 더해진다”로 추워진다는 의미로 보면 뜻이 통한다.

● 【神朮散】 治傷風 頭痛 鼻塞聲重 咳嗽. 蒼朮二錢 羌活 川芎 白芷 細辛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薑三葱一 煎服 『得效』.

### 【校勘】

『得效』<sup>29)</sup>에 “神朮散 治四時瘟疫 頭痛項強 發熱憎寒 身體疼痛 傷寒鼻塞聲重 咳嗽頭昏 并皆治之. 藁本(去土) 羌活(去芦) 甘草(炙) 香白芷 細辛(去葉及土) 川芎 各一兩 蒼朮 五兩(米甘浸一宿, 切炒). 上銼散. 每服三錢 水一盞 生姜三片 葱白三寸 煎七分 溫服 不拘時候 傷風鼻塞 爲末 葱白茶清調下.”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증에서 “頭痛”, “鼻塞聲重”, “咳嗽”만 같고, 『得效』의 “四時瘟疫”, “項強”, “發熱憎寒”, “身體疼痛”, “傷寒”, “頭昏”이 빠져있다. 약재는 동의보감에 藁本이 빠져있고 나머지는 같으며 『得效』에서 散으로 복용하는 약재를 동의보감

에서는 탕약으로 바꾸었다. 『得效』에는 鼻塞시에는 葱白과 茶清와 함께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문이 동의보감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 【款冬花散】 治寒壅相交 肺氣不利 咳嗽痰盛. 麻黃 貝母 阿膠珠各二錢 杏仁 甘草各一錢 知母 桑白皮 半夏 款冬花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水煎服 『得效』.

### 【校勘】

『得效』<sup>30)</sup>에 “款冬花散 治寒熱相交 肺氣不利 咳嗽喘滿 胸膈煩悶 痰實涎盛 喉中呀呷 鼻塞鼻涕 頭痛眩冒 肢體倦疼 咽隘痛. 知母一兩 麻黃(去根節)四兩 桑白皮(洗焙) 半夏各一兩 阿膠(蜂粉炒, 去粉) 貝母(去心, 面炒)各四兩 杏仁(去皮尖, 面炒)二兩 甘草(燼)二兩 款冬花(去梗)一兩 上銼散. 每服水一盞 姜三片 煎至七分 去滓 食後溫服.”으로 되어 있다.

『局方』<sup>31)</sup>에 “款冬花散 治寒壅相交 肺氣不利 咳嗽喘滿 胸膈煩悶 痰實涎盛 喉中呀呷 鼻塞鼻涕 頭痛眩冒 肢體倦疼 咽隘腫痛. 款冬花去皮梗 桑葉洗焙 知母去蘆各二十兩 貝母去心尖麩炒 杏仁去皮麩炒 半夏湯洗七次姜製 阿膠剉炒 甘草燼各二斤半 麻黃去節五斤 右竈末每二錢 水一錢 薑三片 煎七分 食後溫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太平惠民和劑局方』은 陳師文 등에 의해 씌여졌으며, 1252년 완성되었다<sup>32)</sup>. 『世醫得效方』은 1337년 危亦林에 의해 저술되었다<sup>33)</sup>. 『局方』에는 “治寒壅相交”라 수록되어 있다<sup>34)</sup>. 동의보감

27) 許浚.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615.  
28)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p.692.  
29)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5, 16.

30) 上掲書. p.95, 105.  
31)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6. p.124.  
32) 洪元植, 尹暢烈. (증보) 中國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251, 252.  
33) 上掲書. p.242.  
34)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6. p.124.

이 인용한 서적이 『得效』라 되어있고, 저술 시기 상 『得效』는 『局方』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得效』가 『局方』을 인용할 때 “治寒壅相交”를 “治寒熱相交”로 바꾸어 인용하였는데, 동의보감은 “治寒壅相交”라 하여 『局方』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약제의 구성 비율은 동의보감이 『得效』를 따르고 있다. 즉 주치증은 『局方』을 인용하고 있고, 약제의 비율은 『得效』를 참고하고 있음으로 비추어 볼 때 허준 선생은 기재해놓은 인용서적 뿐만 아니라 인용 서적이 인용한 원 문헌도 모두 참고하여 인용 저술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의 “肺氣不利”, “咳嗽痰盛”은 『得效』와 같으나 “喘滿”, “胸膈煩悶 喉中呀呷 鼻塞清涕 頭痛眩冒 肢體倦疼 咽噎痛”등의 증상은 빠져있어 款冬花散의 주치를 더 간략화 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는 『得效』의 麻黃(去根節), 貝母(去心, 面炒), 阿膠(蜂粉炒, 去粉), 杏仁去皮麩炒, 甘草燼桑白皮(洗焙), 款冬花(去梗)를 동의보감은 麻黃, 貝母, 阿膠珠, 杏仁, 甘草, 桑白皮, 款冬花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은 『得效』의 4兩을 동의보감은 2錢으로 『得效』의 2兩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得效』의 1兩을 동의보감은 5分으로 즉, 약 용량을 각각 1/20로 줄여 1첩으로 하여 원래는 散劑이던 것을 湯藥으로 약의 제형을 바꾸었다.

● 【金沸草散】 治感風寒咳嗽 聲重 痰涎黃濁 壅盛. 荊芥穗二錢 旋覆花 前胡各一錢半 麻黃 赤茯苓各一錢 半夏七分半 細辛 甘草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 棗二 梅一 水煎 綿濾去滓服 『正傳』.

#### 【校勘】

『正傳』<sup>35)</sup>에 “金沸草散(<活人>) 治傷寒咳嗽 頭痛發熱 胸膈痰壅 喘滿等證 前胡一錢五分 半夏七分半 細辛三分 赤茯苓一錢 甘草三分 荊芥穗二

分 旋覆花一錢五分(名金沸草) 一方無細辛 茯苓, 有麻黃 芍藥 上細切. 作一服 加生姜五片 大棗一枚 水一盞半 煎至一盞 溫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증에서 동의보감에서는 “風寒咳嗽”, “痰涎黃濁”, “壅盛”이라 하여 인용하면서도 黃濁한 痰涎임을 추가하였고, 聲重 증상도 추가하였다. 頭痛發熱과 喘滿은 생략하였다. 약제는 동의보감에서 麻黃을 추가하였고, 荊芥穗의 용량을 대폭 늘려 均藥으로 사용하였다. 荊芥는 祛風解表, 宣毒透疹, 止血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sup>36)</sup>로 外感 風邪를 더 강하게 치료하기 위해 증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正傳』이 인용한 『活人書』에는 “金沸草散 治傷寒中脘有痰 令人將熱頭痛項筋緊急 時發寒熱 皆類傷風 但不頭痛爲異已. 前胡三兩 荊芥四兩 半夏一兩淨洗薑汁浸 赤芍藥二兩 細辛一兩 甘草一兩灸 旋覆花三兩 右件搗羅爲末 每腹二錢 水一盞 生薑五片 大棗 子一枚 同煎至六分 去滓熱服 未知再服.”으로 되어있는데, 『正傳』에서 인용하면서 『活人書』의 赤芍藥을 赤茯苓으로 인용하였으며, 복용법을 간략화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도 『正傳』을 따라 赤茯苓이라 기재하고 복용법 또한 간략화하였다.

● 【三拗湯】 治感風寒咳嗽 鼻塞聲重失音. 麻黃不去根節 杏仁不去皮尖 甘草不灸不去皮各一錢半.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 『局方』.

#### 【校勘】

『局方』<sup>37)</sup>에 “三拗湯 治感冒風邪 鼻塞聲重 語音不出 或傷風傷冷 頭痛目眩 四肢拘攣 咳嗽多痰 胸滿氣短 麻黃(不去節) 杏仁(不去皮尖) 甘草(生用) 各等分. 右爲麗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姜五片 同煎至一盞 去滓通口服 以衣被蓋覆睡 取微汗爲

35)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31, 32.

36)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圖書出版 永林社. 2000. p.338.

37)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6. p.77.

度”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 주치증에서 “感冒風邪”, “鼻塞聲重”, “語音不出”은 문구는 다르나 의미는 같게 인용하였으며 『局方』에는 그 주치증 외에도 “或傷風傷冷”, “頭痛目眩”, “四肢拘攣”, “咳嗽多痰”, “胸滿氣短”의 증상이 있다. 구성약재는 『局方』의 甘草(生用)를 동의보감은 甘草不炙不去皮이라 하여 의미는 같으나 표현은 다르게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약재는 같게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局方』에서는 “各等分”이라고만 나와있으나 동의보감은 각각 1錢半씩으로 용량을 새롭게 지정해주고 있다. 『局方』에서는 “以衣被蓋覆睡取微汗爲度”라 하여 복약법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五拗湯】 治感風寒咳嗽 聲重咽痛. 三拗湯加荊芥穗 桔梗各一錢煎服 如上法 『丹心』.

【校勘】

『丹心』 38)에 “五拗湯 (澹寮方) 治風寒 咳嗽肺氣喘急. 麻黃(不去節) 杏仁(不去皮) 甘草(生用) 荊芥穗 桔梗 各等分. 上咬咀 生姜三片 同煎 溫服 咽痛甚者 煎熟後 加朴硝少許”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에서 주치증 중 “風寒咳嗽”는 『丹心』과 같으나 “肺氣喘急” 대신 “鼻塞 聲重 咽痛”으로 되어있다. 약재 종류는 같다. 『丹心』에서는 麻黃, 杏仁, 甘草를 모두 각각 표기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바로 위의 처방인 三拗湯이라고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다.

● 【加減三拗湯】 治風喘嗽. 麻黃二錢 杏仁 桑白皮各一錢半 甘草一錢 蘇子 前胡各六分. 右剉作

一貼 入薑三片 水煎服 『入門』.

【校勘】

『入門』 39)에 “加減三拗湯 麻黃一錢 杏仁 桑白皮各七分 甘草五分 蘇子 前胡各三分 姜三片 水煎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동의보감이 “治風喘嗽”를 추가하였다. 본래 『入門』에서는 “喘因風寒 三拗湯中 加星半”이라는 조문 下에 있다. 이를 볼 때 『入門』에서 상기 처방의 주치증은 喘症이지 咳嗽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은 상기 처방을 喘과 嗽에 모두 사용하고 있어 처방의 응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재의 용량은 동의보감이 『入門』의 두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물 구성은 동일하다.

3. 寒嗽

○ 寒傷肺者 咳則胸緊聲啞 『入門』. ○ 脈緊 增寒發熱 無汗惡寒 煩燥不渴 遇寒而咳 『醫鑑』. ○ 風寒者 鼻塞聲重 惡寒 二陳湯 加麻黃 杏仁 桔梗 『醫鑑』. ○ 一種咳嗽 每遇寒 則發乃寒 包熱也 解表 則熱自除 枳梗湯(即桔梗枳殼湯) 加麻黃 防風 杏仁 陳皮 紫蘇葉 木通 黃芩 『入門』. ○ 脾肺皆受寒邪 則面白 脈弦微 涎出口甘 水反侮土 寡於畏也. 腹中大寒 痰白作泡 口甘涎沫者 胃中寒而不和 以辛甘熱去之 『東垣』. ○ 寒嗽 宜九寶飲 華蓋散 杏子湯 紫蘇飲子 橘蘇散 薑桂丸 人參款花膏 半夏溫肺湯 杏蘇湯 白圓子 人參潤肺湯 溫肺湯 加味理中湯 八味款冬花散 飴薑元 『諸方』.

【校勘】

『入門』 40)에 “寒乘肺咳則胸緊 聲啞”로 되어 있다.

『醫鑑』 41)에 “傷寒咳者 脈緊 憎寒發熱 無汗惡

38)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6.

39)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31.

40) 上掲書. p.197.

寒 煩燥不渴 遇寒則咳”로 되어 있다.

『醫鑑』 42)에 “風寒咳者 鼻塞聲重 惡風惡寒 或自汗 或無汗者是也. 治當以發散行痰 用二陳湯加麻黃 桔梗 杏仁”으로 되어 있다.

『入門』 43)에 “又有一種遇寒則咳者 謂之寒暄 乃寒包熱也. 解表則除 桔梗湯 加麻黃 防風 杏仁 陳皮 蘇葉 木通 黃芩”으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에서는 『入門』의 “寒乘肺”를 “寒傷肺”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醫鑑』의 寒傷咳에 관한 내용을 동의보감에서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의 “增寒”(불을 증)은 『醫鑑』에서는 “憎寒”(미워할 증)이라 하였는데 憎寒은 惡寒의 의미이며<sup>44)</sup>, “增寒”은 “寒이 더해진다”로 추워진다는 의미로 보면 뜻이 통한다. “風寒咳者 鼻塞聲重 惡風惡寒 或自汗 或無汗者是也. 治當以發散行痰 用二陳湯加麻黃 桔梗 杏仁”은 『正傳』의 해수 치료편의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正傳』의 “惡風”, “或自汗 或無汗”의 증상이나, 이 구문에서 사용한 “二陳湯加味方”의 작용인 “發散行痰”은 동의보감에 빠져있다. 『入門』의 “寒暄”이라는 病名은 省略하고 대신 “寒包熱”이라 인용하고 있다. 뒤에 사용하는 처방은 같게 인용하였다.

● 【九寶飲】 治諸般咳嗽 及寒嗽久嗽. 陳皮 薄荷 麻黃 桂皮 桑白皮 紫蘇葉 杏仁 大腹皮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 梅一箇 水煎服 『易簡』.

#### 【校勘】

『易簡』 45)에 “九寶湯治喘疾不睡. 素有喘疾遇

寒暄不常之時發則連綿不已夜不能睡則服九寶湯用龍腦薄荷紫蘇葉大腹皮麻黃各一兩桑白皮官桂杏仁橘皮甘草各減半每服水一盞半生薑十片烏梅二個煎至六分去渣專心服之其效甚驗年高人患喘嗽者亦宜服之小兒室女哮喘之患其效尤著切不可謂薄荷冷紫蘇耗氣麻黃發散不經多服蓋病有主對服之不妨時間感冒頭重鼻塞或流清涕或作咳嗽並宜服此惟虛勞自汗人不可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諸般咳嗽 及寒嗽 久嗽”로 주치증을 간략화하였다. 구성 약재는 동의보감에서는 龍腦가 빠졌고, 『易簡』의 橘皮, 官桂를 각각 陳皮, 桂皮로 인용하였다. 용량은 『易簡』에서는 桑白皮, 官桂, 杏仁, 橘皮, 甘草를 다른 약재보다 적게 썼으나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약의 양을 1錢으로 같게 사용하였다. 처방의 명칭이 『易簡』에서는 “九寶湯”이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九寶飲”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易簡』에서는 자세한 복약법 및 금기가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華蓋散】 治肺感寒邪 咳嗽上氣 鼻塞聲重. 麻黃二錢 赤茯苓 蘇子 陳皮 桑白皮 杏仁各一錢 甘草灸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入門』.

#### 【校勘】

『入門』 46)에 “華蓋散 蘇子 赤茯苓 陳皮 桑白皮 麻黃 杏仁各一錢 甘草五分 水煎溫服 治肺感風邪 咳嗽上氣 胸膈煩萬 項背拘急 頭目昏眩 鼻塞聲重 痰氣不利”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入門』의 “治肺感風邪”를 동의보감은 “治肺感寒邪”라 수정하여 인용하였고, 『入門』

41)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5.

42) 上揭書. p.65.

43) 李樅.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7.

44)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p.693.

45) 王碩. 易簡方. 中醫古籍出版社. 1994. p.31.

46) 李樅.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64

의 “胸膈煩萬 項背拘急 頭目昏眩 痰氣不利”는 동의보감에서는 생략하였다. 『入門』에는 주치증이 구성 약재 다음에 수록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주치증을 약재 구성 앞으로 배치하였다. 동의보감은 麻黃의 용량을 1錢에서 2錢으로 올려서 인용하였다. 나머지 약재와 용량은 같다. 복약법은 『入門』에서는 “水煎溫服”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水煎服”이라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 【杏子湯】 治感風寒 痰盛咳嗽 尤宜冷嗽. 人參 半夏 赤茯苓 白芍藥 細辛 乾薑 桂皮 杏仁 五味子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梅一 水煎服 加麻黃尤佳 『易簡』.

#### 【校勘】

『易簡』 47)에 “杏子湯治外感內傷一切咳嗽. 杏子湯治咳嗽 咯血 痰飲 附感冒風寒 痰壅 喘急. 杏子湯治一切咳嗽不問外感風寒內傷生冷及虛勞咯血 痰飲停積悉皆治療 人參 半夏 茯苓 細辛 乾薑 芍藥 甘草 官桂 五味子各等分 右咬咀每服四錢水一盞半杏仁去皮尖剉五枚薑五片煎至六分去滓食前服若感冒得之加麻黃等分”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易間』에서는 “外感內傷一切咳嗽”를 치료한다고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寒嗽 처방에 포함되었으며, “感風寒 痰盛咳嗽 尤宜冷嗽”에 사용한다고 하여 外感 咳嗽에 치우치게 사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易間』의 烏梅가 빠졌으며 細辛이 추가되었다. 『易簡』의 茯苓, 芍藥, 官桂, 杏仁去皮尖剉를 동의보감에서는 각각 赤茯苓, 白芍藥, 桂皮, 杏仁으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다. 약재의 용량은 杏仁의 경우 『易間』에서는 “五枚”로 되어있으나 하였고 동의보감은 이를 1錢으로 단위를 무게 단위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易簡』은 나머지 약재는 “各等分”이라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人參 半夏 赤茯苓 白芍藥 細

辛 乾薑 桂皮 杏仁 五味子の 경우 一錢, 甘草는 五分이라 하여 약재의 용량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전탕법에서 『易間』은 “右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六分”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作一貼”, “水煎服”이라 하여 『易間』은 물의 용량까지 기재 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易間』은 “食前服”이라 하여 복약시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紫蘇飲子】 治脾肺虛寒 咳嗽痰盛. 紫蘇葉 桑白皮 青皮 杏仁 五味子 麻黃 陳皮 甘草各一錢 人參 半夏各六分. 右剉作一貼 入薑三 水煎服 『丹心』.

#### 【校勘】

『丹心』 48)에 “紫蘇飲子 治脾肺虛寒 痰涎咳嗽 紫蘇葉 桑白皮 青皮(去白) 五味子 杏仁 麻黃 甘草 陳皮各五錢 人參 半夏湯泡各二錢 上咬咀 每服一兩 生薑三片 水二盞 煎八分 食後 溫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丹心』의 “痰涎 咳嗽”를 동의보감은 “咳嗽 痰盛”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구성약물은 『丹心』의 青皮(去白), 半夏湯泡를 동의보감은 青皮, 半夏로 각각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약재는 같다. 약재의 용량은 『丹心』의 5錢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丹心』의 2錢을 동의보감은 6分으로 각각 용량을 줄여 인용하였다. 煎湯法은 『丹心』에서는 “上咬咀 每服一兩”, “水二盞 煎八分”이라 하여 물의 용량 또한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水煎服”이라 간략히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丹心』에는 “食後 溫服”이라 하여 복약시간을 설명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47) 王碩. 易簡方. 中醫古籍出版社. 1994. p.32.

48)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7.

● 【橘蘇散】 治傷寒 咳嗽 身熱 有汗 脈浮數 服杏子湯 不得者 宜服此. 橘紅 紫蘇葉 杏仁 白朮 半夏 桑白皮 貝母 五味子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薑三 水煎服 『濟生』.

【考察】

『濟生』의 原書는 이미 없어졌고, 『濟生』의 自序에 의하면 원래 論治 80, 制方 400, 續方 또는 增方이 90, 評論이 24였으나 현존하는 本은 論이 56, 方이 240여개로 8권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原書의 반 분량밖에 되지 않아 유실된 것으로 생각된다<sup>49)</sup>.

● 【薑桂丸】 治寒痰咳嗽. 桂皮二兩 南星 半夏並製各一兩. 右爲末 薑汁浸蒸餅和 丸菉豆大 薑湯下 三五十九 『易老』.

● 【人參款花膏】 治肺胃虛寒 久嗽不已. 款冬花 人參 五味子 桑白皮 紫菀各一兩. 右爲末 蜜丸芡實大 每一丸 以淡薑湯嚼下 含化亦得 『綱目』.

【校勘】

『綱目』 50)에 “人參款花散 治肺胃虛寒 久嗽不已 咽膈滿悶 咳嗽痰涎 嘔逆惡心 腹脇脹滿 腰背倦痛 或虛勞冷嗽 及遠年近日一切咳病 諸藥不效 並皆治之. 款冬花, 人參, 五味子, 紫菀, 桑白皮 各一兩, 杏仁 八錢, 木香, 檳榔, 紫蘇葉, 半夏(湯泡) 各五錢. 右爲細末 煉蜜爲丸 如鷄頭仁大. 每服一丸 食後細嚼 淡薑湯送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증은 『綱目』의 “治肺胃虛寒”과 “久嗽不已” 두가지만 동의보감이 인용하였다. 『綱目』의 약재에 비해 동의보감은 杏仁, 木香, 檳榔, 紫

蘇葉, 半夏가 빠져있고 나머지는 구성약재와 용량이 같게 인용되었다. 약조제법은 『綱目』에서는 “右爲細末 煉蜜爲丸”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右爲末 蜜丸”이라 하였다. 또한 丸의 크기를 『綱目』에서는 “鷄頭仁大”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芡實大”라 하였다. 복약법은 『綱目』에서는 “每服一丸”, “細嚼 淡薑湯送下”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每一丸 以淡薑湯嚼下 含化亦得”이라 하여 나머지 내용은 같으나 동의보감이 含化하는 것도 좋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복약시간이 『綱目』에는 “食後”라 기재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半夏溫肺湯】 治虛寒咳嗽 中脘有痰水冷氣 心下汪洋嘈雜 多唾清水 脈沈弦細遲 此胃虛冷也. 半夏 細辛 桂心 旋覆花 陳皮 人參 桔梗 白芍藥 甘草各一錢 赤茯苓六分. 右剉作一貼 入薑五 水煎服 『入門』.

【校勘】

『入門』 51)에 “發明半夏溫肺湯 細辛桂心 旋覆花 甘草陳皮 蔘桔梗 芍藥茯苓 赤者佳. 半夏 細辛 桂心 旋覆花 甘草 陳皮 人蔘 桔梗 芍藥各五錢 赤茯苓三分 每四錢 薑煎 溫服 治虛寒咳嗽 及中脘 痰水 冷氣 心下汪洋 嘈雜 多唾清水 脅脹 不食 脈 沈弦細遲 此 胃虛冷所致也”로 되어 있다.

【考察】

처방명을 『入門』의 “發明半夏溫肺湯”에서 동의보감은 “半夏溫肺湯”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주치는 동의보감이 인용시 어조사에 해당하는 “及”과 “所致”를 빼서 간략화 하였고, “脅脹 不食”이라는 문구도 뺐다. 『入門』에서는 약재가 먼저 배치되고 그 뒤에 주치증이 배치되었으나 동의보감은 인용시 주치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약재들을 배치하였다. 구성 약재는 『入

49) 洪元植, 尹暢烈.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275.

50)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12, 1113.

51) 李槌.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66.

門』의 “芍藥”을 동의보감은 “白芍藥”이라 하여芍藥이 赤芍藥인지 白芍藥인지를 구분해주었다. 약재의 용량은 『入門』의 5錢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인용하였고, 『入門』의 3分을 동의보감은 6分으로 인용하여 각 약재들간의 용량차를 줄였다. 약 조제법은 『入門』에서는 “每四錢 薑煎 溫服”이라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作一貼 入薑五 水煎服”이라 되어있어 生薑의 양이 5片임을 새로 지정해주었다.

● 【杏蘇湯】 治傷風寒 咳嗽痰盛. 杏仁 紫蘇葉 桑白皮 陳皮 半夏 貝母 白朮 五味子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 水煎服 『得效』.

【校勘】

『得效』<sup>52)</sup>에 “杏蘇湯 治傷風身熱 有汗惡風. 病證挾熱 服杏子湯不得者 此葯穩當也. 橘紅 紫蘇葉 杏仁(去皮尖) 五味子 半夏(湯泡七次) 桑白皮(蜜略炙) 貝母(去皮) 白朮(炒)各一兩 甘草(炙)半兩. 上銼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姜五片 煎至八分 去滓溫服 不拘時候.”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의 주치는 “治傷風寒”, “咳嗽”, “痰盛”으로 『得效』에서 “傷風”에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정하였다. 杏蘇湯은 『得效』에서 해수 중 寒證이 아닌 風證에 사용하는 해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 처방을 寒嗽에 분류하였다. 『得效』의 杏子湯은 해수 중 冷證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분류되어있고 동의보감에서는 寒嗽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처방의 분류에 있어 허준 선생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得效』에서는 杏子湯을 복용하고도 낫지 않는 때 이 처방을 쓴다고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구성 약재는 『得效』의 杏仁(去皮

尖), 桑白皮(蜜略炙), 半夏(湯泡七次), 貝母(去皮), 白朮(炒), 甘草(炙)를 동의보감은 각각 杏仁, 桑白皮, 半夏, 貝母, 白朮, 甘草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得效』의 1兩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得效』의 半兩을 동의보감은 5分으로 줄여서 인용하였다. 煎湯 방법은 『得效』에서는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八分”이라 하여 물의 양을 표시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作一貼”, “水煎服”이라고 되어있다. 『得效』는 “不拘時候”라 하여 복용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人參潤肺湯】 治傷寒咳嗽. 人參 乾葛 桔梗 白芷 麻黃 乾薑 白朮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薑三葱二 煎服 『丹心』.

【校勘】

『丹心』<sup>53)</sup>에 “人參潤肺湯 治肺氣不足 咳嗽不已 并傷寒 壯熱 頭疼身痛. 人參 乾葛 桔梗 白芷 麻黃(去皮) 乾薑五錢 白朮 甘草炙各二兩. 上咬咀 每服八錢 水一盞 生姜三片 葱白一莖 煎之八分 溫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丹心』에서는 “肺氣不足으로 해수가 낫지 않고, 傷寒 壯熱 頭疼身痛이 동반되는 것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治傷寒咳嗽”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구성 약재는 『丹心』의 麻黃(去皮), 甘草(炙)를 동의보감은 麻黃, 甘草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人參, 乾葛, 桔梗, 白芷, 麻黃, 乾薑의 경우 『丹心』의 5錢에서 동의보감은 1兩으로 白朮, 甘草의 경우 『丹心』의 2兩에서 동의보감은 1兩으로 줄여서 인용하였다. 『丹心』에서는 白朮, 甘草의 용량이 타 약들에 비해 4배의 용량이나, 동의보감에서는 모

52)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91.

53)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7.

든 약제들이 동량으로 쓰였다. 또한 『丹心』의 “葱白一莖”은 동의보감에서는 “葱二”로 되어 있다. 전당 방법에 있어 『丹心』은 “上咬咀 每服八錢 水一盞”, “煎之八分”이라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煎服”라 되어있어 물의 양은 생략하고 한첩으로하여煎湯하였다.

● 【溫肺湯】 治肺虛客寒 喘咳 嘔吐痰沫. 乾薑 桂皮 半夏 陳皮 五味子 杏仁 甘草各一錢 細辛 阿膠珠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直指』.

【校勘】

『直指』54)에 “溫肺湯治肺虛感冷咳嗽嘔吐痰沫 乾薑 辣桂 甘草炙 半夏製 陳皮 北五味子 杏仁去皮尖各一兩 細辛 阿膠炒各半兩. 右龔散每二錢半薑棗煎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증에서 “肺虛”, “嘔吐痰沫”은 같고, 동의보감은 “客寒”, “喘咳” 증상을 삽입하였다. 구성 약제는 辣桂를 桂皮로, 半夏製를 半夏로, 北五味子를 五味子로 바꾸어 인용하였으며, 杏仁去皮尖을 杏仁으로, 甘草炙를 甘草로, 阿膠炒를 阿膠珠로 수치법을 대부분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은 『直指』의 1兩을 동의보감에서는 1錢으로 인용하였고, 『直指』의 半兩을 동의보감은 5分으로 인용하였다. 『直指』에는 “薑棗煎服”이라 하여 生薑과 大棗의 용량이 나와있지 않지만 동의보감은 “薑三棗二”라 하여 生薑과 大棗의 용량을 명시하였다. 『直指』는 복용법을 “每二錢半薑棗煎服”으로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이라하였다.

● 【加味理中湯】 治肺胃俱寒咳嗽. 人參 白朮 乾薑 甘草 赤茯苓 半夏 陳皮 細辛 五味子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丹心』.

【校勘】

『丹心』55)에 “加味理中湯 治肺胃俱寒 咳嗽不已. 甘草炙 半夏湯洗 茯苓去皮 乾薑不炒 白朮 橘紅 細辛 北五味 人參各等分. 上咬咀 每服三錢 薑棗煎 食前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丹心』의 “咳嗽不已”를 “咳嗽”로 간략화 하였으며, 구성 약제는 『丹心』의 乾薑不炒, 甘草炙, 茯苓去皮, 半夏湯洗, 橘紅, 北五味를 동의보감은 乾薑, 甘草, 白茯苓, 半夏, 陳皮, 五味子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거나 약제명을 바꾸어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은 『丹心』에서는 “各等分”이라 하여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모두 1錢씩으로 용량을 새롭게 기재하였다. 또 生薑과 大棗의 용량에서 『丹心』은 “薑棗煎”이라 하여 따로 용량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동의보감은 “入薑三棗二”라 하여 약제의 용량을 표시하였다.煎湯 방법은 『丹心』에서는 “上咬咀 每服三錢 薑棗煎”이라 되어있고,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이라 바꾸어 인용하였다. 『丹心』에는 “食前服”이라 하여 복용법이 기재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八味款冬花散】 治肺經寒熱不調 涎嗽不已. 桑白皮 紫蘇葉 杏仁 麻黃各一錢半 款冬花 紫菀茸 五味子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去滓 入黃蠟皂角刺大 再煎融化服之 『丹心』.

【校勘】

『丹心』56)에 “八味款冬花散 治肺經 寒熱不調 涎嗽不已. 款冬花洗焙 紫菀茸 五味子 甘草炙各七錢半 桑白皮 麻黃去節 杏仁湯泡去皮炒 紫蘇葉各一兩. 上爲粗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入黃蠟皂角刺

54)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44-205.

55)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6.

56) 上揭書. p.208.

大煎至一盞熱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은 주치를 동일하게 인용하였고, 약재 또한 순서를 용량이 많은 것을 앞으로 배치시켰다. 구성 약재의 종류는 포제를 생략한 약재가 있었는데 『丹心』의 麻黃去節을 동의보감에서는 麻黃으로, 杏仁湯泡去皮炒를 杏仁으로, 款冬花洗焙를 款冬花로, 甘草炙를 甘草로 동의보감은 각각 포제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에서 桑白皮, 紫蘇葉, 杏仁, 麻黃은 『丹心』에서는 1兩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1錢半으로 용량을 줄였고, 款冬花, 紫菀茸, 五味子, 甘草는 『丹心』에서는 7錢半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1錢으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을 줄인 비율은 각각 1/6.6, 1/5.75의 비슷한 비율로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였다. 煎湯 방법이 『丹心』은 “上爲粗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入黃蠟皂角刺大煎至一盞”이라 하여 약재 중 5錢을 취하여 전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물의 양이 기재되어있으며 黃蠟을 약재와 같이 전탕하는 것을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水煎去滓 入黃蠟皂角刺大 再煎融化服之”라 하여 위 약을 한첩으로 하여 전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물의 양은 생략하였으며, 黃蠟의 경우 약재의 찌꺼기를 모두 걸러낸 다음 그 전탕액에서 다시 녹여서 먹는 것으로 되어있다. 『丹心』은 “熱服”이라 하여 복용법이 나와있으나 동의보감은 생략하였다.

● 【飴薑元】 治冷嗽. 黑糖一斤 乾薑細末四兩. 右先熔糖 次下薑末 和勻待凝 作片 常常嚼下 『鄉集』.

【校勘】

『鄉集』 57)에 “薑飴煎治冷嗽 乾薑炮製三兩細末

57)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2. 서울. 여강출판사. 1978. p.77.

飴飴一斤. 右拌均以瓷器盛置飯上蒸冷極熱每服一棗大含化嚙津日三夜二”로 되어 있다.

【考察】

처방명을 “薑飴煎”에서 “飴薑元”으로 수정하였다. 주치는 같다. 구성약재는 『鄉集』의 薑飴를 동의보감은 黑糖으로 바꾸어 인용하였으며, 『鄉集』의 “乾薑炮製三兩”을 동의보감은 “乾薑細末四兩”으로 포제 및 구성 약재를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복용법은 『鄉集』의 “每服一棗大含化嚙津日三夜二”를 동의보감은 “常常嚼下”로 간단하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4. 熱嗽

○ 傷於暑熱而得 咳則口燥 聲嘶 吐沫 『入門』.  
○ 傷暑咳者 脈數 煩熱引飲 口燥 或吐涎沫 聲嘶咯血 『醫鑑』.  
○ 凡咳嗽 面赤 胸腹脇常熱 惟足乍有涼時 其脈洪滑者 熱痰在內也 宜小陷胸湯[方見寒門] 能治熱嗽 胸滿 『綱目』.  
○ 熱嗽 宜辰砂六一散[方見暑門] 洗肺散 人參瀉肺湯 貝母散 參朮調中湯 芩半丸 小黃丸 黃連化痰丸 四汁膏 『諸方』.

【校勘】

『入門』 58)에 “暑乘肺咳則口燥 聲嘶 吐沫”로 되어 있다.

『醫鑑』 59)에 “傷暑咳者 脈數 煩熱引飲 口燥 或吐涎沫 聲嘶咯血”로 되어 있다.

『綱目』 60)에 “凡咳嗽面赤 胸腹脇常熱 惟於足乍有涼時 其脈洪者 熱痰在胸膈也 宜小陷胸湯”으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은 “外因四氣 隨時冷” 조문 下에 있

58)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7.

59)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5.

60)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22.

는 문장이다. 동의보감 熱嗽 부분이므로 暑 대신 暑熱이라 고쳐쓴 듯하다. 뒤의 증상 설명은 같다. 『醫鑑』은 동의보감이 완전히 같게 인용하였다. 16종 해수 부분에서 인용서적과 원문이 완전히 같게 인용된 문장은 이 문장 하나 뿐이다. 『綱目』은 동의보감이 “脈滑”을 “脈洪滑”로 수정하였고, “在胸膈”을 “在內”로 수정하였다.

● 【洗肺散】 治咳嗽痰盛 有熱 肺氣不清利. 半夏三錢 黃芩二錢 天門冬 麥門冬 五味子各一錢半 杏仁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 『丹心』.

【校勘】

『丹心』 61)에 “洗肺散 治咳嗽痰盛 肺氣不利. 黃芩二錢 半夏三錢 天門冬去心 麥門冬去心 五味子各一兩半 甘草半錢 杏仁去皮尖. 上咬咀 作一服 水二鍾 生薑五片 煎至七分 食後服 滓再煎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에서 동의보감은 “有熱”을 덧붙이고, “肺氣不利”를 “肺氣不清利”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약재 종류는 『丹心』의 甘草를 동의보감은 생략하였다. 『丹心』의 天門冬去心, 麥門冬去心, 杏仁去皮尖을 동의보감은 각각 天門冬, 麥門冬, 杏仁이라 인용하여 수치를 생략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五味子の 용량을 『丹心』의 1兩半을 동의보감에서는 1錢半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전탕방법은 『丹心』에서는 “上咬咀 作一服 水二鍾”, “煎至七分”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水煎服”이라 하여 물의 양을 생략하였다. 또한 『丹心』에서는 “食後服 滓再煎服”으로 복약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생략하였다.

● 【人參瀉肺湯】 治熱嗽. 卽涼膈散[方見火門]

去朴硝 加人參 枳殼 桔梗 杏仁 桑白皮 等分 剉煎服 『入門』.

【校勘】

『入門』 62)에 “人參瀉肺湯 卽涼膈散 去朴硝 加枳殼 桔梗 桑白皮 杏仁 各等分 水煎 溫服 治熱嗽便秘.”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에서는 주치가 “治熱嗽便秘”인데 동의보감에서는 “治熱嗽”라 하여 “便秘”가 빠졌다. 『入門』에서 人參瀉肺湯은 積熱을 치료하는 涼膈散의 변방 중에 있다. 즉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 16종 해수 부분에 처방을 인용 시 『入門』의 咳嗽 부분의 처방만이 아닌 積熱 부분의 처방도 필요 시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상기 『入門』 내용을 인용 시 주치 뒤에 구성 약재 순서로 구성을 재배치 하였다. 구성 약재는 동의보감에서는 人參이 더 들어 있다. 구성 용량은 “各等分”으로 같다.

● 【貝母散】 治火嗽 久嗽. 杏仁三錢 款冬花二錢 知母一錢半 貝母 桑白皮 五味子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服 『入門』.

【校勘】

『入門』 63)에 “貝母散中桑白皮款冬花與杏仁知五味甘草薑煎熟火嗽日久服無時. 貝母 桑白皮 五味子 甘草各五分 知母二分半 款冬花二錢 杏仁三錢 姜煎溫服 治咳嗽 多日不愈 火嗽亦宜.”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에서 처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入門』의 “火嗽日久 服無時”의 주석에 약재의 구성만 열거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貝母散”이

61)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15.

62)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89.

63) 上掲書. p.666, 667.

라 처방명을 새롭게 기재하였다. 주치는 『入門』에서는 “治咳嗽 多日不愈 火嗽亦宜.”라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治火嗽 久嗽”라 하여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같다. 약재의 용량에서 동의보감은 知母를 2分半에서 1錢半으로, 貝母, 桑白皮, 五味子, 甘草를 5分에서 1錢으로 각각 증량시켰다. 生薑에 대해서는 『入門』은 “薑煎溫服”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入薑三片”이라 하여 동의보감이 용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參朮調中湯】 除熱補氣 止嗽定喘 和脾胃進飲食. 桑白皮一錢 黃芪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各六分 地骨皮 麥門冬 陳皮各四分 青皮二分 五味子二十粒. 右剉作一貼 水煎服 『東垣』.

【校勘】

『東垣』 64)에 “參朮調中湯 瀉補熱氣止嗽定喘和脾胃進飲食 白朮五分 黃耆四分 桑白皮 甘草炙 人參已上各三分 麥門冬去心 青皮去白 陳皮去白 地骨皮 白茯苓已上各二分 五味子二十箇”로 되어 있다.

【考察】

상기 처방은 東垣十書 중 『內外傷辨』 수록된 처방이다. 『東垣』의 주치 중 “瀉補熱氣”를 “除熱補氣”로 더 쉽게 풀어썼으며 그 뒤는 같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麥門冬去心을 麥門冬으로 인용하였고, 甘草炙를 甘草로 인용하여 두 가지 약물의 수치를 생략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전체적으로 증량되었는데, 白朮은 5分에서 6分으로, 黃芪는 4分에서 6分으로, 桑白皮는 3分에서 1錢으로, 甘草, 人參은 3分에서 6分으로, 麥門冬, 陳皮, 地骨皮는 2分에서 4分으로, 白茯苓은 2分에서 6分으로 증량시켰고, 青皮와 五味子만 각각 2分과 20粒으로 『東垣』의 용량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東垣』에는 煎湯法이 나와있지 않으나

6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p.41.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水煎服”이라 하여煎탕법을 기재하였다.

● 【芩半丸】 治熱嗽生痰. 黃芩 半夏各一兩. 右爲末 薑汁糊和 丸梧子大 薑湯下七十九 『入門』.

【校勘】

『入門』 65)에 “古芩半丸 黃芩 半夏各一兩 爲末 薑汁糊 丸梧子大 每七十九 薑湯 下 治熱嗽生痰”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에서 처방명을 『入門』의 “古芩半丸”을 “芩半丸”으로 수정하였다. 주치는 같으나 『入門』에서는 주치가 약재구성 및 복용법에 기재되어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약재구성 앞에 기재되어 있다. 약재 구성 및 약재의 용량, 약 조제법, 복용량 및 복용법이 같게 인용되었다. 『入門』의 “爲末” 앞에 동의보감에서는 “右”를 첨가하여 “右爲末”로 바꾸어 인용하였으나 의미의 변화는 없다.

● 【小黃丸】 治熱痰咳嗽 脈洪 面赤 煩渴. 黃芩一兩半 南星 半夏並製各一兩. 右爲末 薑汁浸蒸餅和丸梧子大 薑湯下五七十九 『易老』.

● 【黃連化痰丸】 治熱痰咳嗽. 黃連 吳茱萸各一錢半 陳皮五錢 半夏一兩半. 右爲末 薑汁糊和丸菉豆大 薑湯吞下一百丸 『丹心』.

【校勘】

『丹心』 66)에 “黃連化痰丸 半夏一兩半 黃連一兩 吳茱萸湯洗一錢半 桃仁二十四個研 陳皮半兩. 右爲末 麵糊丸綠豆大 每服一百丸 薑湯送下”로 되어 있다.

65)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64.

66)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311.

【考察】

주치가 『丹心』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治熱痰咳嗽”로 되어 있다. 구성 약재는 『丹心』에는 桃仁이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없고, 『丹心』에서는 黃連을 1兩을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1錢半 사용하였다. 『丹心』의 陳皮半兩을 동의보감에서는 같은 용량이지만 陳皮五錢으로 다르게 표현하였다. 『丹心』의 吳茱萸湯洗를 동의보감에서 吳茱萸라고 인용하여, 포제를 생략하였다. 이 처방은 다른 처방들과는 반대로 약재를 용량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丹心』은 “麵糊丸”이나 동의보감은 “薑汁糊和丸”으로 수정하였다.

● 【四汁膏】 止咳嗽 消痰降火. 雪梨汁 藕汁 生蘿菘子汁 生薄荷汁等分. 右等分 入砂糖屑 和勻 慢火熬成膏 以匙抄服 『入門』.

【校勘】

『入門』 67)에 “四汁膏 清痰降火 下氣止血 用雪梨 甘蔗 泥藕 蘿蔔 薄荷 各等分 搗碎 濾汁 入銅鍋內 慢火熬膏 飲之”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 “燥” 부분에 있는 처방이다. 주치 중 『入門』의 “清痰降火”를 “消痰降火”라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은 『入門』의 “下氣止血”은 생략하였고 『入門』에 없는 주치인 “止咳嗽”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구성 약재는 『入門』에서는 甘蔗(사탕수수)를 이용한 것을 동의보감에서는 砂糖(설탕)을 이용하였다.

5. 濕嗽

- 濕勝肺者 咳則身重 骨節煩疼 洒淅 『入門』.
- 濕傷咳者 脈細 骨節煩疼 四肢重着 或有汗 小

67) 李樅. 新敎 編註 醫學入門(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71.

便不利 『醫鑑』. ○ 濕嗽 宜不換金正氣散[方見寒門] 白朮湯 白朮丸.

【校勘】

『入門』 68)에 “濕乘肺咳則身重骨節煩疼 洒淅”으로 되어 있다.

『醫鑑』 69)에 “傷濕咳者 脈細 骨節煩疼 四肢重着 或有汗 小便澁.”으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의 “乘” 字를 동의보감에서는 “勝”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入門』에서는 그 뒤에 치료법으로 五苓散, 不換金正氣散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醫鑑』에서 의미는 같으나 문구를 약간씩 수정하였다. 『醫鑑』에서 “傷濕”, “自汗”, “小便澁”을 동의보감에서는 각각 “濕傷”, “有汗”, “小便不利”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 【白朮湯】 治濕嗽痰多 身體重着 脈濡細. 白朮三錢 半夏 橘紅 白茯苓 五味子各一錢半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 『濟生』.

● 【白朮丸】 治濕痰 咳嗽身重 脈緩. 白朮一兩半 南星 半夏並製各一兩. 右末 薑汁糊和丸 薑湯下五七十丸 『易老』.

【校勘】

『綱目』 70)에 “白朮丸 治濕痰咳嗽 脈緩面赤 肢體沉重 嗜臥不收 腹脹而食不消. 天南星 半夏各一兩 白朮一兩半 右爲細末 湯浸蒸餅爲丸 桐子大. 每服五七十丸 薑湯下 食後 『局方』 防己丸亦可用.”이라하였다.

【考察】

68) 李樅. 新敎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7.  
 69)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5.  
 70) 樓英. 醫學綱目(下冊). 中國. 一社. 1984. p.1111, 1112.

『易老』를 찾지 못하여 『綱目』에서 같은 처방을 찾았다. 동의보감에서 주치증은 “濕痰 咳嗽 身重 脈緩” 4가지 증상만 간략히 인용하였다. 『綱目』에는 “面赤 嗜臥不收 腹脹 食不消” 증상이 추가로 더 있으나 이는 동의보감에서는 생략되었다. 약제는 용량과 종류는 같으나 半夏, 南星을 동의보감에서는 범제한 것을 사용하였고, 생강즙 풀로 丸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綱目』에서는 湯浸蒸餅하여 桐子大로 丸을 만들었다.

#### 6. 鬱嗽

○ 卽火嗽甚者 乾咳而無痰 乃腎水焦枯 邪火獨炎於肺 宜瀉白散[方見五藏] 清化丸 訶黎勒丸 霞天膏[方見吐門]. ○ 火鬱者 有聲痰少 面赤者是也. 宜用清金降火湯.

#### 【校勘】

『入門』에 “鬱咳 卽火咳 久者 乾咳 無痰 乃腎水焦枯 邪火獨炎於肺 瀉白散 加桔梗爲君 以開之久者 訶黎丸 虛者 腎氣丸 不得智者 霞天膏 如肺燥 皮枯 瘡瘍 便閉者 活血潤燥生津飲”으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 인용 서적이 빠져있으나 『入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入門』의 “火咳 久者”를 동의보감에서는 “火嗽 甚者”로 바뀌어 인용하였으며, 『入門』의 “乾咳 無痰”사이에 동의보감에서는 어조사 “而”를 넣어서 문맥을 더 자연스럽게 하였다. 사용 처방이 『入門』에는 瀉白散加桔梗, 訶黎丸, 腎氣丸, 霞天膏, 活血潤燥生津飲 이렇게 5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나, 동의보감은 그 중에 瀉白散, 訶黎勒丸, 霞天膏 3가지 처방만 인용하고, 『丹心』의 清化丸을 추가하여 총 4가지 중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처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 『清化丸』 治肺鬱痰嗽 睡不安. 貝母一兩 杏仁五錢 青黛三錢. 右爲末 砂糖 入薑汁糊和丸彈子大 嚙化 『丹心』.

#### 【校勘】

『丹心』 71)에 “清化丸 治肺鬱痰喘嗽 睡不安寧. 貝母 杏仁 青黛. 右爲末 砂糖入薑汁泡 蒸餅丸如彈大 嚙化”로 되어 있다.

#### 【考察】

『丹心』에서는 “鬱痰喘嗽”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喘”을 빼고 “鬱痰嗽”라 하였다. 鬱嗽에 대한 설명이어서 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丹心』의 “睡不安寧”을 동의보감은 “睡不安”이라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丹心』의 “砂糖”을 동의보감에서는 같은 의미인 “砂糖”으로 글자만 바꾸어 인용하였다. 약제의 종류는 같으나 『丹心』에서는 약제의 용량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는 각각 약제의 용량을 표기하였다. 약 조제법 및 丸藥의 크기 복용법은 같게 인용하였다.

● 『訶黎勒丸』 治勞嗽 乾嗽 及肺脹喘急. 訶子皮五錢 海粉 瓜蒌仁 青黛 杏仁 貝母 香附子各二錢半. 右爲末 薑汁和蜜丸櫻桃大 含化 徐徐嚙下 『入門』.

#### 【校勘】

『入門』 72)에 “訶黎丸 訶子皮五錢 海石 瓜蒌仁 青黛 杏仁 貝母 便製香附各二錢半 爲末 薑汁 和蜜 爲丸 含化 徐徐嚙下 治肺脹 喘滿 氣急身重 及勞嗽 乾咳無痰 等證”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처방명이 『入門』에는 “訶黎丸”으로 되어있으

71)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9.  
72) 李樅.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p.465. 1994.

나 동의보감은 “訶黎勒丸”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入門』의 주치는 약재구성 및 복용법 뒤에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약재구성 앞으로 순서를 옮겨놓았으며, 주치 순서도 『入門』에서는 “勞嗽 乾咳無痰”이 “肺脹 喘滿 氣急身重” 뒤에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治勞嗽 乾嗽”를 주치의 가장 앞으로 옮겨왔다. 동의보감은 『入門』의 “喘滿 氣急”을 “喘急”으로, “乾咳無痰”을 “乾嗽”로 간략화하여 인용하였다. 약재 구성 중 『入門』의 海石<sup>73)</sup>은 海浮石의 異名으로 胞孔科 脊突苔蟲의 골격이며 淸肺化痰, 軟堅散結, 通淋의 효능이 있는 약재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이 약재 대신 海粉을 사용하였는데 海粉<sup>74)</sup>은 菌소과 동물 南斑背肛海兔의 띠모양의 卵塊이며 淸熱養陰 軟堅消痰의 효능이 있는 약재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약재이다. 나머지 약재구성은 같으며, 『入門』의 “便製香附”를 동의보감은 炮製를 생략하고 “香附子”로 인용하였다. 『入門』에는 丸으로 만든다고만 되어있고 丸의 크기가 나와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는 丸의 크기를 “櫻桃大”라 기재하고 있다.

● 【淸金降火湯】 治熱嗽 能瀉肺胃之火 火降則痰消嗽止. 陳皮 杏仁各一錢半 赤茯苓 半夏 桔梗 貝母 前胡 瓜蒌仁 黃芩 石膏各一錢 枳殼八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入生薑三片 水煎服 食後『醫鑑』.

【校勘】

『醫鑑』<sup>75)</sup>에 “淸金降火湯 瀉肺胃中之火 火降則痰消嗽止. 陳皮一錢五分 半夏(泡)一錢 杏仁(去皮尖)一錢半 黃芩(炒)一錢 石膏一錢 瓜蒌仁一錢 甘草(炙)三分. 上銼一劑 生姜三片 水煎 食遠 臨臥服.”으로 되어 있다.

73)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圖書出版 永林社. 2000. p.766.  
74) 이경순, 안덕균, 신민교, 김창민. 완역 중약대사전 10.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6057, 6058.  
75)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66. 1999.

【考察】

동의보감은 “治熱嗽”라는 주치를 추가하였다. 구성 약재에서 陳皮, 半夏, 瓜蒌仁, 黃芩, 石膏는 용량 변화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고, 杏仁은 『醫鑑』에서는 1錢이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1錢半으로 증량하였고, 赤茯苓, 桔梗, 貝母, 前胡, 枳殼은 『醫鑑』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새롭게 加味하였다. 『醫鑑』의 “半夏(泡)”, “杏仁(去皮尖)”, “黃芩(炒)”, “甘草(炙)”는 동의보감에서는 모두 炮製를 생략하고 “半夏”, “杏仁”, “黃芩”, “甘草”로 수정하여 인용하고 있다. 『醫鑑』에서는 “食遠 臨臥服”이라 복용법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7. 勞嗽

○ 虛勞咳嗽也. ○ 勞嗽者 盜汗出 兼痰多 作寒熱 宜補陰淸金 四物湯 加竹瀝 薑汁. ○ 陰虛火動而咳 四物合二陳湯 加黃栢 知母. ○ 陰虛喘嗽 或吐血 四物加黃栢 知母 五味子 麥門冬 桑白皮 地骨皮 『醫鑑』. ○ 好色之人 元氣虛弱 咳嗽不愈 宜瓊玉膏[方見身形] 治虛勞乾咳嗽最捷 『丹心』. ○ 勞嗽 宜人參淸肺湯 加味二母丸 人參芎歸湯 加味人參紫菀散 潤肺丸 補肺湯 溫金散 大寧嗽湯 知母湯 寧嗽膏 大阿膠元 『諸方』. ○ 酒色過度 虛勞少血 津液內耗 心火自炎 遂使燥熱乘肺 咯唾膿血 上氣涎潮 其嗽連續而不可已 須用六味地黃丸 [方見虛勞] 加橘紅 貝母 黃栢 知母 『入門』.

【校勘】

『醫鑑』<sup>76)</sup>에 “勞嗽者 痰多盜汗是也. 或作寒熱 宜補陰淸金 四物湯加竹瀝姜汁. 陰虛火動而咳者 四物 二陳 順而下之; 加黃蘗 知母尤妙. 陰虛咳嗽 或吐血者 四物湯加黃蘗 知母 五味子 麥門冬 桑白皮 地骨皮 牡丹皮 山梔子”로 되어 있다.

『丹心』<sup>77)</sup>에 “好色之人 元氣虛 咳嗽不愈 瓊玉

76) 上掲書. p.65.  
77) 陳柱杓.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36.

膏”로 되어 있다.

『正傳』 78)에 “好色之人 元氣虛弱 咳嗽不愈 瓊玉膏最捷”으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의 “虛勞 咳嗽也.”는 勞嗽를 설명한 내용으로 『醫鑑』에 나와있지 않은 허준 선생의 부연 설명으로 보인다. 勞嗽의 증상에서 『醫鑑』의 “痰多盜汗”이란 부분을 인용하면서 증상의 순서를 바꿔 “盜汗出 兼痰多”라 하여 盜汗 증상을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盜汗이란 증상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醫鑑』에서 “加黃蘗 知母尤妙”라 하여 선택적으로 가미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四物合二陳湯 加黃栢 知母”라 하여 기본으로 가미하였다. 『醫鑑』의 吐血者에서 者를 빼고 인용하였는데, 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간략화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서 『醫鑑』의 약재 중 牡丹皮, 山梔子를 빼고 인용하였다. 『丹心』은 동의보감이 인용 후 瓊玉膏에 대하여 治虛勞 乾咳嗽 最捷라는 구문을 추가하였다. 『醫學正傳』은 明代의 綜合醫書로 虞搏이 1515년 저술한 서적으로 79) 이 구문은 『正傳』이 『丹心』을 인용하였다. 『丹心』에서는 “元氣虛”라 하여 동의보감의 “元氣虛弱”에서 “弱”자가 빠져있고, 最捷이라는 구문은 없다. 그러나 『正傳』에서는 “元氣虛弱”과 “最捷”이란 구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에서 『丹心』을 인용한 『正傳』을 인용해놓고 원 서적인 『丹心』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인용서적을 기재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 『人參清肺湯』 治久嗽勞嗽 及肺痿唾血腥臭. 人參 桑白皮 地骨皮 知母 阿膠珠 鶯粟殼蜜炒 杏仁 桔梗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入大棗 烏梅各一枚 水煎去滓 入蜜一匙攪勻 澄清吸服 『得效』.

78)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68. 1999.  
79) 洪元植, 尹暢烈.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社. 2001. p.372.

一名人參清肺飲 『入門』.

### 【校勘】

『得效』 80)에 “人參清肺湯 治肺胃虛寒 咳嗽喘急 胸膈噎悶 脇肋脹滿 迫塞短氣 喜欲飲冷 咽噫引痛. 及療肺痿勞嗽 唾血腥臭 乾嘔煩熱 聲音未出 肌肉消瘦 倦怠減食. 地骨皮 人參 甘草 阿膠(麩炒) 杏仁(去皮, 麩炒) 桑白皮 知母 烏梅(去核) 桔梗(去蘆) 鶯粟殼(去蒂蓋 蜜炙). 上等分 銚散. 每服三錢 水一盞半 烏梅 棗子各一枚 同煎至一盞, 去渣 食后臨臥加蜜半匙攪勻 澄清 吸服效.”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 중 “治久嗽 勞嗽”는 새로 추가된 구문이고, “及肺痿 唾血 腥臭”는 『得效』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구성 약재는 같으나 『得效』의 阿膠(麩炒), 杏仁(去皮, 麩炒), 烏梅(去核), 桔梗(去蘆), 鶯粟殼(去蒂蓋 蜜炙)은 동의보감이 각각 阿膠珠, 杏仁, 烏梅, 桔梗, 鶯粟殼으로 포제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得效』에는 “食后臨臥”라는 복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加味二母丸』 治久嗽 勞嗽 食積嗽. 知母 貝母 同巴豆炒黃色去巴豆[同二母散法] 入白礬 白芨 四味等分. 右爲末 和薑汁入蜜爲丸 芡實大 含化嚥下 或加麥門冬 陳皮 阿膠珠亦好 『入門』.

### 【校勘】

『入門』 81)에 “加味二母丸 知母 貝母 用巴豆 同炒黃色 去巴 入白礬 白芨 各等分 爲末 薑汁和蜜 爲末 含化 或加麥門冬 陳皮 阿膠 等分 亦好 治久嗽 勞嗽 食積嗽”로 되어 있다.

80)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94.  
81) 李樾.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64, 465.

【考察】

『入門』의 주치는 약재구성 및 복용법 뒤에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약재구성 앞으로 순서를 옮겨놓았으며, 내용은 같다. 약재 종류와 용량은 같으나 약의 조제방식에 있어 표현방법을 다소 바꾸어 인용하였는데, 『入門』의 “知母 貝母用巴豆 同炒黃色”을 동의보감은 “知母 貝母同巴豆炒黃色”이라하였고, 『入門』의 “去巴”를 동의보감은 “去巴豆”라 하여 약재의 전체이름을 다 기재하였다. 동의보감은 知母, 貝母, 巴豆의 약재는 二母散과 같은 약재로써 二母散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는(“同二母散法”) 부연설명이 더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入門』의 “各等分”을 동의보감은 “四味等分”이라 하여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약의 제형이 『入門』은 “爲末”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爲丸芡實大”로 되어 있어 동의보감이 약재의 제형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人參芎歸湯】 治乾嗽 因虛勞少血 燥熱乘肺 咯唾膿血 動輒冒寒咳嗽. 當歸 川芎 白芍藥各一錢半 赤茯苓 人參 半夏 陳皮 阿膠珠 細辛 五味子 甘草各七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直指』.

【校勘】

『直指』<sup>82)</sup>에 “人參芎歸湯治虛勞少血津液內耗 心火自炎燥熱乘肺咳嗽咯血及血不榮肌動輒毛寒咳嗽. 當歸 川芎 白芍藥各二分 人參 半夏製 橘皮 赤茯苓 阿膠炒 細辛 北五味子 甘草炙各一分. 右剉每服三錢薑四片棗二箇煎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直指』의 “治虛勞少血 津液內耗 心火自炎 燥熱乘肺 咳嗽咯血 及血不榮 肌動 輒毛寒咳嗽.”를 “治乾咳 因虛勞少血 燥熱乘肺 咯唾膿

血 動輒冒寒咳嗽”로 간략화하여 인용하였다. 즉 『直指』의 “內耗心火自炎”을 동의보감은 생략하였고, 동의보감 주치 뒷부분의 “動輒”의 경우 『直指』에서는 “血不榮肌動輒”이라 하여 원인이 설명 되어있는데 이를 동의보감이 생략한 것이다. 『直指』의 “毛寒咳嗽”를 동의보감은 “冒寒咳嗽”라 하였는데, “冒”자가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글자로 바뀌어 인용이 되었다. 『直指』의 “毛寒”은 皮毛惡寒. 皮毛가 으슬으슬 오싹한다는 뜻이다<sup>83)</sup>. 동의보감의 “冒寒”에서 “冒”는 덮는다는 뜻으로“冒寒”은 寒邪에 감촉되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약재는 『直指』의 半夏製, 阿膠炒, 北五味子が 동의보감에서는 각각 半夏, 阿膠珠, 五味子로 인용되었고, 『直指』의 橘皮가 빠지고 동의보감은 대신 陳皮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약재는 같으며, 용량은 『直指』의 2分이 동의보감에는 一錢半으로, 『直指』의 1分이 동의보감에서는 7分으로 동의보감이 약 7배 가량 용량을 늘렸으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直指』는 이 약재를 갈아서 3錢을 취하여 “薑四片棗二箇”와 함께 “煎服”하라고 되어있고, 동의보감은 “薑三棗二”를 넣고 “水煎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加味人參紫菀散】 治虛勞咳嗽. 人參 五味子 紫菀茸 陳皮 紫蘇葉 貝母 桑白皮 白茯苓各一錢 杏仁 甘草各七分半 加川芎 半夏麴各一錢 阿膠珠五分. 右剉作一貼 薑五 棗二 梅一 水煎服『直指』.

【校勘】

『直指』<sup>84)</sup>에 “加味人參紫菀散治虛勞咳嗽. 人參 北五味子 紫菀茸 陳皮 貝母去心 紫蘇葉 桑白皮炒 白茯苓 杏仁去皮炒 甘草炙各三分 加川芎 半夏麴各一兩 阿膠炒酥半兩. 右麤末每服三錢薑七

83)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p.701.

84)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26.

82)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09.

片棗二每烏梅一箇食後煎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直指』와 동일하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는 『直指』의 北五味子, 貝母去心, 桑白皮炒, 杏仁去皮炒, 阿膠炒酥를 동의보감에서 五味子, 貝母, 桑白皮, 杏仁, 阿膠珠로 각각 인용한 것 외에는 같다. 약제 용량은 人參, 五味子, 紫菀茸, 陳皮, 紫蘇葉, 貝母, 桑白皮, 白茯苓은 『直指』는 3分인데 동의보감은 1錢으로 수정되었고, 杏仁, 甘草는 『直指』는 3分인데, 동의보감은 7分으로 수정되었으며, 川芎, 半夏麴은 『直指』는 1兩인데 동의보감은 1錢으로 수정되었고, 阿膠珠는 『直指』는 半兩인데 동의보감에서는 5分으로 수정되었다. 복용법 또한 다른데, 『直指』에서는 전체 약제 가루낸 것 3錢을 薑七片 棗二每烏梅一箇와煎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위 용량을 1첩으로하여 薑五 棗二梅一과 함께 水煎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直指』에서는 川芎, 半夏麴, 阿膠의 비율이 다른 약제들에 비해 많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그 비율이 다른 약제들과 비슷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直指』에서는 “食後煎服”이라 하여 복용 시간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潤肺丸】 治燥痰 乾嗽勞嗽. 貝母一兩 瓜蒌仁 青黛各五錢. 右爲末 薑汁蜜 調成膏嚙化『丹心』.

● 【補肺湯】 治勞嗽. 桑白皮蜜炒 熟地黃各三錢. 人參 紫菀 黃芪 五味子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入蜜一匙服『丹心』.

【校勘】

『丹心』<sup>85)</sup>에 “補肺湯 治勞嗽. 桑白皮 熟地黃各三兩 人參 紫菀 黃耆 五味子各一兩. 上咬咀 每

服一兩 水二盞 煎八分 入蜜少許 溫服 食後”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丹心』과 동일하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 중 『丹心』의 桑白皮를 동의보감에서는 桑白皮蜜炒로 포제를 追加하여 사용하였다. 다른 처방의 약제에서는 인용 서적에서 해왔던 포제들을 동의보감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처방의 경우 오히려 포제를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보감도 포제를 추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제의 용량은 『丹心』의 3兩을 동의보감은 3錢으로, 『丹心』의 1兩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丹心』은 모든 약을 가루내어 1兩을 취하여 “水二盞 煎八分”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 약을 1첩으로 하여 水煎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丹心』은 蜜을 “少許” 넣는다고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蜜을 “一匙” 넣는다고 되어있어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丹心』은 “食後”라 하여 복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溫金散】 治勞嗽. 防風 桑白皮 黃芩 甘草各一兩 杏仁去皮尖二十一粒 人參 茯神各五錢 麥門冬二錢半. 右取前五味 入米泔水浸一宿曬乾 次入人參 茯神 麥門冬 同爲末 每取三錢 入黃蠟 大豆許 煎服『丹心』.

【校勘】

『丹心』<sup>86)</sup>에 “溫金散 治勞嗽. 甘草 黃芩 桑白皮 阿膠各一兩 杏仁二十七粒製 人蔘去芦 茯神各五錢 麥門冬去心二錢半. 上 以前五味 用米泔水浸一宿 曬乾 次入人蔘 茯神 麥門冬三味 同爲末 每服二錢 水一盞 蠟一豆大 煎至八分 食後溫服”으로 되어 있다.

85)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18.

86) 上揭書. p.218.

【考察】

주치는 같다. 구성 약재는 『丹心』의 阿膠를 동의보감은 防風으로 바꿔 인용하였으며, 『丹心』의 杏仁을 동의보감은 杏仁去皮尖으로 수치를 추가하여 인용하였고, 『丹心』의 人蔘去芦, 麥門冬去心을 동의보감은 人蔘, 麥門冬으로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에서 『丹心』의 杏仁 27粒을 동의보감은 21粒으로 줄여 사용하였다. 『丹心』은 모든 약을 가루 내어 2錢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3錢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黃蠟의 용량을 『丹心』은 “一豆大”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大豆許”라 하여 비슷한 의미이지만 바꾸어 인용하고 있다. 『丹心』은 “水一盞”을 “煎至八分”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의보감은 “煎服”이라고만 간략히 인용하였다. 『丹心』은 “食後溫服”이라고 복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생략하였다.

● 【大寧嗽湯】 治勞嗽神效. 半夏二錢 五味子 赤茯苓 桑白皮 紫蘇葉 陳皮 枳殼 杏仁 阿膠珠 鶯粟殼蜜炒各一錢 細辛 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梅一 水煎服 『丹心』.

【校勘】

『丹心』 87)에 “大寧嗽湯 治勞嗽 諸嗽通用 如神效. 北五味 茯苓(去皮) 桑白皮(炒) 蘇葉 細辛 橘皮 枳殼(麩炒) 杏仁(麩炒去皮) 甘草炙 阿膠炒 粟殼去穰蜜炒各三錢 半夏湯洗五錢 勞嗽加川芎. 上咬咀 每服一兩 水二盞 棗二枚 薑三片 烏梅半箇 煎至一盞 溫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丹心』의 “諸嗽通用”을 생략하였고 “如神效”를 “神效”라 인용하였다. 구성약재는 『丹心』의 半夏湯洗, 北五味, 茯苓(去皮), 桑白皮(炒), 蘇葉, 橘皮, 枳殼(麩炒), 杏仁(麩炒去皮),

阿膠炒, 粟殼去穰蜜炒, 甘草炙를 동의보감은 半夏, 五味子, 赤茯苓, 桑白皮, 紫蘇葉, 陳皮, 枳殼, 杏仁, 阿膠珠, 鶯粟殼蜜炒, 甘草로 각각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丹心』의 5錢을 동의보감은 2錢으로, 『丹心』의 3錢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丹心』의 細辛과 甘草는 3錢에서 동의보감은 5分으로 용량을 줄였다. 『丹心』의 “勞嗽에는 川芎을 加”한다는 구문은 인용하지 않았다. 『丹心』은 모든 약을 부수어 “棗二枚 薑三片 烏梅半箇”를 넣고 1兩에 물 2盞을 1盞이 되게 하여 溫服한다고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 약을 1첩으로 하여 “薑三棗二梅一”을 넣고 “水煎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知母湯】 治虛勞咳嗽 唾膿血 心肺有熱. 黃芪蜜灸一錢半 白芍藥 生乾地黃 黃芩 麥門冬 人蔘 白茯苓 桔梗 知母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竹葉三片 小麥一撮 水煎服 『丹心』.

【校勘】

『丹心』 88)에 “知母散 治虛勞 心肺有熱 咳嗽唾膿血 大能解勞 除熱 調順榮衛. 黃耆一兩蜜炙 白芍藥 生地黃 黃芩 麥門冬去心 人蔘去芦 白茯苓去皮 桔梗去芦 知母各七錢半 水一鍾 生薑三片 小麥一撮 竹葉一片 煎至八分 食後溫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丹心』의 “治虛勞 心肺有熱 咳嗽唾膿血 大能解勞 除熱 調順榮衛”를 “治虛勞咳嗽 唾膿血 心肺有熱.”이라 하여 일부분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구성약재는 동의보감이 『丹心』의 약재에 甘草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丹心』의 生地黃을 동의보감에서는 生乾地黃으로 바꾸어 인용하였고, 『丹心』의 麥門冬去心, 人蔘去芦, 白茯苓去皮, 桔梗去芦를 동의보감은 각각 麥門冬,

87) 上掲書. p.219.

88)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666.

人參, 白茯苓, 桔梗으로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丹心』의 “黃耆一兩蜜炙”는 수치의 표기 순서를 용량보다 앞으로 옮겨 동의보감은 “黃芪蜜炙一錢半”으로 바꾸었다. 약재용량은 『丹心』의 1兩을 동의보감은 1錢半으로, 『丹心』의 7錢半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하였다. 전당방법에 있어 『丹心』은 水一鍾에 “生薑三片 小麥一撮 竹葉一片”을 넣고 煎至八分하여 복용한다고 하였고, 동의보감은 이 약을 1첩으로 하여 “薑三片 竹葉三片 小麥一撮”을 넣고 水煎服한다고 하였다. 『丹心』은 “食後溫服”이라 하여 복용시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寧嗽膏】 治陰虛火動 咳嗽咯血. 天門冬 白朮各八兩 百部根 杏仁 貝母 百合各四兩 款冬花五兩 紫菀三兩. 右籩剉 以長流水一斗煎取三升 又易新水 煎取三升 如此三次 合取汁 入飴糖八兩 蜜十六兩 再熬, 入阿膠四兩 白茯苓細末四兩 和勻成膏 每服三五匙 不以時 『醫鑑』.

【校勘】

『醫鑑』 89)에 “寧嗽膏 治陰虛咳嗽 火動咯血 服之斂肺. 天冬(去心)半斤 杏仁(去皮)四兩 貝母(去心)四兩 百部四兩 百合四兩 款冬花五兩 紫菀三兩 白朮四兩. 上銼 用長流水二十碗 煎五碗 濾渣再湯 如是者三次 共得葯汁十五碗 入飴糖半斤 蜜一斤 再熬 又入阿膠四兩 白茯苓細末四兩 和勻如膏. 每服三五匙”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醫鑑』의 “治陰虛咳嗽 火動咯血 服之斂肺.”를 동의보감에서는 “治陰虛火動 咳嗽咯血.”로 일부분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醫鑑』의 天冬(去心), 百部, 杏仁(去皮), 貝母(去心)를 동의보감에서는 각각 天門冬, 百部根, 杏仁, 貝母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 中 白朮

을 『醫鑑』의 4兩에서 동의보감은 8兩으로 늘렸다. 나머지 약재의 용량은 같다. 약의 조제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 『醫鑑』의 물의 양을 측정단위인 “碗”을 동의보감은 “斗”와 “升”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醫鑑』은 24碗을 5碗으로 煎湯하였고, 동의보감은 1斗를 3升으로 煎湯하였으므로, 동의보감이 덜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내용은 통하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醫鑑』의 “如是者三次 共得葯汁十五碗”이라는 내용을 동의보감은 “如此三次”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복용시간이 『醫鑑』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不以時”라 하여 복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밝혔다.

● 【大阿膠元】 治虛勞 咳嗽 吐唾血 發熱消瘦. 山藥 五味子 熟地黃 阿膠珠 白茯苓各一兩 麥門冬 丹參 貝母 防風 茯神 栝子仁 百部根 杜沖各五錢 遠志 人參各二錢半. 右爲末 蜜和作丸 彈子大 每一丸 以小水略煎和滓呷服 『局方』.

【校勘】

『局方』 90)에 “大阿膠圓 治肺虛客熱咳嗽氣急胸中煩浮肢體倦疼咽乾口燥渴欲飲冷多唾涎沫或有鮮血肌瘦發熱減食嗜臥又治或因叫怒或即房勞肺胃治傷吐血嘔血. 熟乾地黃 白茯苓去皮 乾山藥 五味子 阿膠炒各一兩 貝母炒去心 人參炒去殼 麥門冬 百部根 茯神去木 杜仲去粗皮剉炒 丹參各半兩 防風去蘆義 人蔘去蘆 遠志去心各一分. 右爲細末煉蜜和圓每兩作二十四圓每服一圓水一中盞煎至六分 和滓溫服少少頻呷不拘時”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局方』의 “肺虛客熱咳嗽氣急胸中煩浮肢體倦疼咽乾口燥渴欲飲冷多唾涎沫或有鮮血肌瘦發熱減食嗜臥又治或因叫怒或即房勞肺胃治傷吐血嘔血.”을 동의보감은 “治虛勞 咳嗽 吐唾血 發熱

89)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13.

90)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6. p.123, 124.

消瘦.”로 간략화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局方』의 乾山藥, 熟乾地黃, 阿膠炒, 白茯苓去皮, 貝母炒去心, 防風去蘆義, 茯神去木, 柏子仁炒去殼, 杜仲去粗皮剉炒, 遠志去心, 人蔘去蘆을 동의보감은 각각 山藥, 熟地黃, 阿膠珠, 白茯苓, 貝母, 防風, 茯神, 柏子仁, 杜沖, 遠志, 人蔘으로 대부분의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防風을 『局方』의 1分에서 동의보감은 5錢으로 용량을 올렸고, 遠志와 人蔘은 『局方』의 1分에서 동의보감은 2錢半으로 용량을 올렸다. 『局方』의 防風, 遠志, 人蔘은 용량이 1分으로 되어있어, 타약재들의 용량이 각각 1兩이나 5錢인데 비해 너무 적은 용량이므로 동의보감에서는 다른 약들과 비슷하게 용량을 다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약 조제법 중 『局方』의 “水一中盞”을 동의보감에서는 적은 양의 물이라는 뜻인 “少水”로 인용하였다. 단어 선택은 달랐으나 의미에서 큰 변화는 없다.

#### 8. 食積嗽

○ 因食積 生痰 咳嗽胸滿 噎酸 宜二陳湯 加厚朴 山查子 麥芽 『入門』. ○ 食積嗽 非青黛 瓜蒌實 不除 又云 有食積 人面青白黃色不常 面上如蟹瓜路 一黃一白 是也. ○ 食積 痰嗽發熱者 半夏 南星並製爲君 瓜蒌實 蘿菥子爲臣 青黛 石膏爲使 薑汁糊爲丸服 『丹心』. ○ 一方 三補丸[芩連栢也] 加二母[知母 貝母]爲末 水丸椒核大 而竹瀝藕汁吞之 『丹心』. ○ 食積嗽 宜瓜蒌丸 青金丸 二母寧嗽湯 溫脾湯 香附丸 『諸方』.

#### 【校勘】

『入門』 91)에 “食咳 因食積生痰 痰氣 衝胸 腹滿者 二陳湯 加厚朴 山查 麥芽”로 되어 있다.

『丹心』 92)에 “食積痰作嗽 發熱者 半夏 南星爲君 瓜蒌 蘿菥子 爲臣 青黛 石膏 爲使”로 되어

있다.

『正傳』 93)에 “食積痰嗽發熱 半夏 南星爲君 瓜蒌 蘿菥子爲臣 青黛 海石 石鹼爲使 姜汁浸 蒸餅丸服.”으로 되어 있다.

『正傳』 94)에 “食積痰嗽 三補加二母炒爲末 丸如椒核大 以竹瀝 藕汁吞之. (三補 芩 連 栢也; 二母 知 貝母也)”

#### 【考察】

『入門』에서는 “食咳”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의 “咳嗽 胸滿 噎酸”은 『入門』에는 없는 내용이다. 『丹心』은 “薑汁糊爲丸服”이란 말을 추가하였다. 『丹心』의 石膏를 동의보감에서는 石礮으로 인용하였다. 『正傳』에는 石鹼이라 기재되어 있다. “一方 三補丸[芩連栢也] 加二母[知母 貝母]爲末 水丸椒核大 而竹瀝藕汁吞之 『丹心』”은 『丹心』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正傳』에 해당 구문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인용 서적은 『丹心』이 아닌 『正傳』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물로丸을 만든다 하여 “水丸”의 “水”자를 추가하고 있다.

● 『瓜蒌丸』 治食積痰壅滯喘嗽. 瓜蒌實 半夏 麴山查子 神麴 各等分. 右爲末 瓜蒌瓢水和丸 竹瀝薑湯下五七十丸 『丹心』.

#### 【校勘】

『丹心』 95)에 “瓜蒌丸 治食積 痰壅滯喘. 瓜蒌仁 半夏 山查肉 神麴各等分 右爲末 以瓜蒌水丸薑湯入竹瀝下二十丸”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丹心』의 “治食積 痰壅滯喘.”을 동의보감이 “治食積痰壅滯喘嗽.”로 인용하여 “嗽”를 주

91)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8.  
92)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2.

93)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9.  
94) 上揭書. p.69.  
95)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79.

치증에 추가하였다. 구성 약제는 『丹心』의 半夏, 山查肉을 동의보감은 각각 半夏麴, 山查子를 사용하였으며 약재 용량은 같다. 『丹心』의 “瓜水”를 동의보감은 “瓜萆瓢水”라 하여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丹心』의 “薑湯入竹瀝”을 동의보감은 “竹瀝薑湯”으로 표현하고 있다. 丸의 복용량은 『丹心』은 20丸을 복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50-70丸을 복용하도록 되어있다.

● 【青金丸】 治食積火鬱嗽 劫藥也. 貝母 知母 各五錢 巴豆霜五分 右末 薑汁糊和丸 青黛爲衣 白湯下五七丸 『丹心』.

【校勘】

『丹心』 96)에 “清金丸 治食積火鬱嗽劫藥. 貝母 知母各半兩爲末 巴豆去油膜半錢. 右爲末 薑泥丸 辰砂爲衣 食後服 每五丸 白湯下. 一云. 青黛爲衣”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동일하게 인용하였다. 약재 구성은 『丹心』의 巴豆去油膜을 동의보감은 巴豆霜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丹心』의 薑泥를 동의보감에서는 薑汁糊라 바꿔서 인용하였다. 薑泥는 생강을 찧어 진흙처럼 만든 것이고 薑汁糊는 생강즙에 쑨 풀이다<sup>97)</sup>. 동의보감에는 “青黛爲衣”라 되어있지만 『丹心』에는 “辰砂로 爲衣하는데, 어떤 책에는 青黛로 爲衣한다.”고 하였다. 복용량은 『丹心』에서는 “五丸”을 복용량으로 하였고 동의보감에서는 “五七丸”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 【二母寧嗽湯】 治傷飲食 胃火上炎 衝逼肺氣 痰嗽久不愈 一服即差. 石膏二錢 貝母 知母各一錢半 梔子 黃芩各一錢二分 桑白皮 赤茯苓 瓜萆仁 陳皮各一錢 枳實七分 生甘草二分 五味子十粒. 右

96) 上掲書. p.261.

97)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p.704.

剉作一貼 薑三煎服 『醫鑑』.

【校勘】

『醫鑑』 98)에 “二母寧嗽湯 治因傷酒食 胃火上炎 衝逼肺金 以致咳嗽吐痰 經旬不愈 一服即差. 知母去毛錢半 貝母去心錢半 黃芩一錢二分 山梔仁一錢二分 石膏二錢 桑白皮一錢 茯苓一錢 瓜萆仁一錢 陳皮一錢 枳實七分 五味子十粒 生甘草三分. 上剉一諸 生姜三片”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醫鑑』에 “傷酒食”이라고 된 것을 동의보감에서는 “傷飲食”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醫鑑』에서는 “10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기침”이라고 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오랫동안 낫지 않는 기침”이라고 구문만 수정하였다. 구성 약제는 『醫鑑』의 貝母去心, 知母去毛, 山梔仁, 茯苓을 동의보감은 貝母, 知母, 梔子, 赤茯苓이라 인용하였다. 茯苓의 경우 茯苓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白茯苓과 赤茯苓 두 가지가 있어 혼동될 수가 있는데 동의보감은 이를 赤茯苓으로 명확히 하였다. 약재 용량은 『醫鑑』에서의 生甘草 3푼을 동의보감에서 生甘草 2푼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고, 나머지의 용량은 같다. 또한 『醫鑑』은 구성 약재가 용량과 상관없이 배치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약재의 용량 순서로 재배치하였다.

● 【溫脾湯】 治食飽則咳. 甘草四兩 大棗二十枚. 右剉水五升煮至二升 分三服 『千金』.

【校勘】

『千金』 99)에 “溫脾湯 治食飢而咳者方 甘草四兩 大棗十枚 右二味咬咀以水五升煮取二升分三服 若咽中痛而聲鳴者加乾薑一兩”으로 되어 있다.

98)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6.

99) 孫思邈. 千金要翼方.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663.

【考察】

『千金』에서는 주치에 “治食飢而咳”라 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治食飽則咳”라 하여 각각의 책에서 반대의 경우에 같은 처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약재 종류와 수는 같고 大棗의 용량이 『千金』에서는 20枚이나 동의보감은 10枚로 인용하였다. “右二味咬咀”를 동의보감에서는 “右剉”라고 간략히 인용하였다. 환투에 해당하는 『千金』의 “若咽中痛而聲鳴者加乾薑一兩”은 동의보감이 인용하지 않았다.

● 【香附丸】 治食積痰嗽. 蒼朮三兩 香附子一兩半 蘿菴子炒 瓜蒌仁 杏仁 半夏各一兩 黃芩 茯苓各五錢 川芎三錢. 右爲末 薑汁糊和丸 淡薑湯下 五七十丸 『正傳』.

【校勘】

『正傳』 100)에 “痰嗽氣急 蒼朮三兩 香附一兩半 蘿菴子蒸 杏仁 瓜蒌仁 半夏各一兩 黃芩 茯苓各五錢 川芎三錢 丸服.”

【考察】

『正傳』에 처방명이 없으나 동의보감에서 “香附丸”이라 처방명을 정하였다. 主治는 『正傳』에서는 “痰嗽氣急”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治食積痰嗽”라 하였다. 구성약재는 『正傳』의 香附, 蘿菴子蒸, 茯苓을 동의보감은 각각 香附子, 蘿菴子炒, 赤茯苓으로 인용하였다. 杏仁과 瓜蒌仁은 동의보감에서 인용 과정 중 순서를 바꿔서 인용하였다. 『正傳』에는 “丸服”이라 간단히 나와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 약들을 가루내고 생강즙을 넣어 쏘 풀로 반죽하여 환을 만들어 생강을 연하게 달인 물에 50-70알씩 먹는다”고 더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100)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9.

9. 氣嗽

○ 七氣積傷成咳嗽 痰涎凝結 或如敗絮 或如梅核 滯塞咽喉 咯不出嚥不下 婦人多有之 『入門』. ○ 氣嗽 宜蘇子降氣湯[方見氣門] 加味四七湯[方見神門] 圓參飲子 青龍散 三子養親湯 蘇子煎 玉粉丸 星香丸 橘薑丸 『諸方』.

【校勘】

『入門』 101)에 “痰涎 凝結 如絮膜 如梅核 窒碍 咽喉之間 咯不出 嚥不下”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에 “七氣積傷 成咳嗽”와 “婦人多有之”라는 구문이 추가 되었다. “如絮膜”을 “或如敗絮”로, “窒碍咽喉之間”을 “滯塞咽喉”로 바꾸어 인용하여 동의보감은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들을 조금씩 바꿔 사용하였다.

● 【圓參飲子】 治七情咳嗽 勞傷肺脾 多唾膿血 漸成肺痿 將作勞瘵. 人參 半夏 紫菀 阿膠珠 百合 款冬花 天門冬 杏仁 經霜桑葉各一錢 細辛 甘草各五分 五味子十五粒. 右剉作一貼 薑三煎服 『濟生』.

● 【青龍散】 治咳上氣不得臥. 人參 陳皮 紫蘇葉 五味子 右剉一兩 薑三 水煎服 『丹心』.

【校勘】

『丹心』 102)에 “青龍散 治咳嗽上氣不得臥 人參 去芦 陳皮去白 五味子 蘇葉各一兩 上咬咀 每服一兩 水二盞 生薑五片 煎至八分 去滓 食後 溫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101)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79.

102)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9.

주치의 내용은 咳嗽를 咳로 인용하였고 나머지는 같다. 약재구성은 『丹心』의 人蔘去芦, 陳皮去白, 蘇葉을 동의보감은 각각 人參, 陳皮, 紫蘇葉이라 인용하였다. 약재 용량에서 『丹心』에서는 生薑을 5片 사용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3片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약재는 용량이 같다. 약 조제 방법 및 복용시간에 대해 『丹心』에서는 “上咬咀 每服一兩 水二盞 生薑五片 煎至八分 去滓 食後 溫服”이라 자세히 표현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右剉一兩 薑三 水煎服”이라 간략히 표현하고 있다.

● 【三子養親湯】 治咳嗽氣急 養脾進食. 紫蘇子 蘿蔔子 白芥子各一錢. 紙上微炒研 煮湯飲 勿煎太過 味苦 『入門』.

#### 【校勘】

『入門』 103)에 “三子養親湯 紫蘇子 蘿蔔子 白芥子各等分 紙上 微炒 微微研碎 每三錢 用絹袋盛之 煮湯 勿煎太過 冷味苦辣口 大便 素實者 入熟蜜一匙 冬加薑一片 能進飲食 養脾胃”로 되어 있다.

#### 【考察】

『入門』의 주치는 처방 맨 뒤에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약재구성 앞으로 옮겨서 인용하였다. 주치는 『入門』에서는 “能進飲食 養脾胃”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治咳嗽氣急 養脾進食.”이라 하여 “咳嗽氣急”을 치료함을 주치에 추가하였다. 구성약재는 같고, 약재의 용량은 『入門』에서는 각등분이라 하여 따로 기재되고 있지 않지만 동의보감은 각각의 약물을 1錢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약 조제방법은 『入門』에서는 “紙上微炒 微微研碎 每三錢 用絹袋 盛之 煮湯”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紙上微炒研 煮湯飲”으로 더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入門』의 주의사항에는

“勿煎太過 冷味苦辣口”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勿煎太過 味苦”라 하였다. 『入門』에는 처방의 말미에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꿀을 넣고, 겨울에는 生薑 한쪽을 넣으면 脾胃를 길러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는 加減法이 더 적혀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蘇子煎】 治老虛人上氣咳嗽. 紫蘇子一升 另搗爲末 杏仁去皮尖雙仁一升 另研爲泥 生薑汁 生地黃汁 白蜜各一升 蘇杏二味 以二汁澆之絞取汁 其滓再搗再絞 令味盡出 乃合蜜攪勻盛器中 重湯煮如飴 每服一大匙 日三 或去地黃汁 代竹瀝亦佳 『奇效』.

#### 【校勘】

『奇效』 104)에 “蘇子煎 治上氣咳嗽. 紫蘇子 生薑汁 生地黃汁 白蜜 杏仁各一升. 上搗蘇子 以地黃汁薑汁澆之 以絹絞取汁 更搗 以汁澆之 絞令味盡出 去滓熬 令杏仁微黃黑如脂 又以汁澆之 絹絞 往來六七度 令味盡 去滓 內蜜合和 置銅器中 于湯上煎之 令如飴 每服方寸匕 日三夜一. 一方無地黃汁.”으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奇效』에 “治上氣咳嗽”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治老虛人 上氣咳嗽”로 되어 있다. 약재 구성은 5가지 약재로서 兩書에 모두 같다. 약 조제법에서 『奇效』는 蘇子와 杏仁에 대하여 각각 “上搗蘇子 以地黃汁薑汁澆之 以絹絞取汁 更搗 以汁澆之 絞令味盡出 去滓熬”, “令杏仁微黃黑如脂 又以汁澆之 絹絞 往來六七度 令味盡 去滓”라 하여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구성약재에서 紫蘇子와 杏仁에 대해 “紫蘇子一升 另搗爲末 杏仁去皮尖雙仁一升 另研爲泥”라고 설명한 후 약 조제법에서는 “蘇杏二味 以二汁澆之絞取汁 其滓再搗再絞 令味盡出”이

103)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69.

104) 董宿, 方賢. 明清中醫名著叢刊 奇效良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238.

라 하여 두 가지 약재의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杏仁에 관하여 “杏仁去皮尖雙仁”이라 하여 『奇效』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하였다. 每回 복용량은 『奇效』에서는 “每服方寸匕”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每服一大匙”라 하였다. 복용시간은 『奇效』에서는 “日三夜一”로 하루 4회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日三”이라 하여 복용 횟수를 줄였다.

● 【玉粉丸】 治氣痰 咳嗽喘急. 陳皮二兩 南星半夏各一兩. 右爲末 以薑汁浸 蒸餅和丸 薑湯下五七十丸 『易老』.

【校勘】

『綱目』 105)에 “玉粉丸 治氣痰咳嗽 脈急面白 氣上喘促 浙洒寒熱 悲愁不樂. 天南星 半夏各一兩 陳皮去白二兩 右爲細末 湯浸蒸餅爲丸 如桐子大. 每服五七十丸 人蔘 生薑湯下 食後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易老』의 문헌을 찾지 못해 『綱目』에 기재된 玉粉丸과 비교하였다. 우선 주치를 보면 『綱目』의 “治氣痰咳嗽 脈急面白 氣上喘促 浙洒寒熱 悲愁不樂”을 동의보감에서는 “治氣痰 咳嗽喘急”으로 간략히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의 약재 배열 순서는 용량 순으로 재배치하였으며, 『綱目』의 陳皮去白은 陳皮로 사용하였다. 『綱目』에서는 “湯浸蒸餅爲丸”인데 동의보감에서는 “以薑汁浸 蒸餅和丸”이라 하여 丸을 만드는 방법을 다소 달리하였고, 『綱目』에서는 “人蔘生薑湯”에 丸藥을 복용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生薑湯”에 丸藥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綱目』에서는 桐子대로 丸의 크기를 정해주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丸이라고만 하여 丸의 크기는 생략하였다. 『綱目』에서는 “食後服”이라 하여 복용시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생

략하였다.

● 【星香丸】 治氣嗽生痰. 南星 半夏各三兩 白礬一兩 研和水浸二味一宿 陳皮五兩泔浸一晝夜去白取三兩 香附子三兩 皂角水浸一伏時曬乾. 右不見火爲末 薑汁糊和丸 梧子大 薑湯下五七十丸 此乃家傳秘方 累驗 『丹心』.

【校勘】

『丹心』 106)에 “星香丸 諸氣嗽生痰. 南星 半夏各三兩用白礬一兩研同水浸二味一宿 陳皮五兩泔浸時去白取三兩 香附子三兩皂角水浸一週時曬. 上四味 不見火 爲末 薑汁糊 丸 梧子大 每服五十丸 臨臥 薑湯下 此方 家傳秘方 累驗”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같게 인용하였다. 半夏와 南星의 수치방법에서 『丹心』은 “用白礬一兩研同水浸二味一宿”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白礬一兩研和水浸二味一宿”이라고 문구는 다르게 인용하였으나 의미는 같다. 陳皮의 수치방법에서 『丹心』은 “泔浸時去白取三兩”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泔浸一晝夜去白取三兩”이라 하여 수치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香附子의 수치에서는 『丹心』은 “皂角水浸一週時曬”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皂角水浸一伏時曬乾”이라 인용하였다. 약재의 구성은 같으며, 每回 복용량에 대해 『丹心』은 “每服五十丸”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五七十丸”을 복용한다 하였다. 복용시간에 대해 『丹心』은 “臨臥”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橋薑丸】 治久患氣嗽聖藥. 陳皮 生薑同搗焙乾各二兩. 右爲末 神麴二兩 作糊和丸 梧子大 米飲下三五十丸 『入門』.

105)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12.

106)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13.

【校勘】

『入門』 107)에 “古橘薑丸 陳皮生薑 同搗焙乾 各二兩 爲末 用神麴末二兩 打糊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三五丸 食後 臨臥 米飲 松下 治久患氣嗽 聖藥 凡火嗽 忌用人參半夏陳皮等燥藥 氣嗽忌用 粟殼荳蔻等澁藥.”으로 되어 있다.

【考察】

『入門』에서는 구성 약재가 먼저 수록되고 그 뒤에 주치가 나오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주치를 먼저 기재하고, 그 뒤에 약물 구성을 인용하였다. 구성 약물은 같으며 용량도 같다. 약 조제 방법에서 『入門』은 “用神麴末二兩 打糊爲丸 如梧桐子大”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神麴二兩 作糊和丸梧子大”라 하였다. 동의보감이 神麴末 대신 神麴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의미는 같으나 문구만 약간씩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복용시간은 『入門』에서는 “臨臥”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入門』에서는 처방 뒤에 火嗽에는 人參 陳皮 半夏 등 燥藥의 사용에 신중하고, 氣嗽에는 粟殼 荳蔻 등 澁藥의 사용에 신중하라는 주의점이 이어지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10. 痰嗽

○ 痰嗽者 痰出嗽止 胸膈多滿 盖濕痰在胃 上干於肺 則必作咳嗽 『入門』. ○ 痰嗽者 咳動便有痰聲 痰出則止也 『丹心』. ○ 痰鬱肺經 咳則涎多 二陳湯 加枳殼 桔梗 瓜蒌仁 黃芩 貝母 又用半瓜丸. ○ 寒熱交作 而痰嗽者 小柴胡湯[方見寒門] 加知母 白芍藥 五味子 桑白皮 『正傳』. ○ 痰盛有熱 宜滾痰丸[方見痰門]. ○ 痰嗽 宜洗肺散 橘甘散 滴油散 二母散 玉芝元 澄清飲 三聖丹 藍漆煎元 安肺散 人參散.

107)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65.

【校勘】

『入門』 108)에 “痰咳 痰出咳止 胸膈多滿 經 曰 秋傷於濕 冬必咳嗽 濕在心 謂之熱痰 濕在肝 謂之風痰 濕在肺 謂之氣痰 濕在腎 謂之寒痰 惟濕痰 入胃 上干於肺則必作咳”로 되어 있다.

『丹心』 109)에 “痰者 嗽動便有痰聲 痰出咳止”로 되어 있다.

『正傳』 110)에 “寒熱交作而痰嗽者 小柴胡加知母之類. 一方加白芍藥 五味子 桑白皮.”로 되어 있다.

【考察】

“經 曰秋傷於濕 冬必咳嗽 濕在心 謂之熱痰 濕在肝 謂之風痰 濕在肺 謂之氣痰 濕在腎 謂之寒痰”이라고 『入門』에서 내경을 인용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惟濕痰 入胃 上干於肺則必作咳”를 인용하되 “惟”자는 의미가 통하는 “盖”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 『丹心』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丹心』에서 痰嗽의 의미로 쓰인 “痰”을 “痰嗽”로 구체화하여 수정하였으며 “痰出咳止”를 “痰出則止也”로 조사 “則”을 넣고, 같은 문장 앞에서 중복되서 나오는 “咳”를 생략하여 문장을 더 분명히하고, 간략화하였다. 인용 문헌이 적히지 않은 “痰鬱 肺經 咳則涎多 二陳湯 加枳殼 桔梗 瓜蒌仁 黃芩 貝母 又用半瓜丸.”은 허준 선생의 경험을 적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正傳』에서는 “小柴胡湯에 知母 종류를 넣어 쓰거나 혹은 다른 처방에서는 白芍藥, 五味子, 桑白皮를 가하기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허준 선생이 이 두 가지 경우 중 “小柴胡湯 加知母 白芍藥 五味子 桑白皮”를 사용한다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인용되어있다. 이는 두 가지로 처방을 사용해본 결과 경험에 의해서 더

108)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8.  
109) 陳柱杓.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99.  
110)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70. 1999.

효과가 좋다고 판단된 경우나 혹은 허준 선생이 즐겨쓰던 방식을 수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문장인 “痰嗽 宜洗肺散 橘甘散 滴油散 二母散 玉芝元 澄清飲 三聖丹 藍漆煎元 安肺散 人參散.” 역시 인용 문헌이 없는 문장으로 허준 선생이痰嗽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적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半瓜丸】 治痰嗽. 半夏 瓜蒌仁各五兩 貝母 桔梗各二兩 枳殼二兩半 知母一兩 爲末 薑汁浸 蒸餅和 丸梧子大 薑湯下五七十丸. 半夏 須久浸薑 汁 炒黃色 否則辣喉 『正傳』.

【校勘】

『正傳』 111)에 “痰嗽 用半夏 瓜蒌子各五兩 貝母 桔梗各二兩 知母一兩 枳殼一兩半 爲細末 生薑汁 浸 蒸餅爲丸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正傳』에는 처방명이 나와 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 “半瓜丸”이라고 처방명을 새로 만들었다. 구성 약재에서 『正傳』의 瓜蒌子を 동의보감에서는 瓜蒌仁으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枳殼이 『正傳』에서는 1兩半이었으나 동의보감은 2兩半으로 증량시켜서 인용하였고 나머지 약재의 용량은 같게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 환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자대로 만들어야 함이나 생강달인 물에 50-70알씩 복용 하여야 한다는 복용법 및 복용량 설명을 동의보감에서 추가하였다. 그 뒤에 半夏의 수침법인 “半夏 須久浸薑汁 炒黃色 否則辣喉”는 동의보감에서 새롭게 추가된 구문인데, 半夏를 수침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목구멍이 맵다는 내용은 허준선생의 의견이 담긴 유의 사항이라 생각된다.

● 【橘甘散】 治氣嗽痰嗽甚效. 橘皮 生薑焙乾

神麴炒各等分. 右爲末 溫水和 丸梧子大 米飲下五七十丸 日再 『正傳』.

● 【滴油散】 治痰嗽 面浮如盤. 蚌粉 新瓦上炒 令通紅 放地上出火毒 每半兩 加青黛一錢 以淡薑 水滴入麻油數點調服 卽愈 『醫說』.

【校勘】

『醫說』 112)에 “治痰嗽 緩帶李防禦京師人初爲 入內醫官眞嬪御閣妃若痰嗽終多不寐 面浮如盤 時 方有甚寵徽宗幸其閣見之以爲慮馳遣呼李李先數用 藥詔令往內東門供狀若三日不效當誅李憂援技窮與 妻對泣忽聞外間叫云咳嗽藥一文一貼喫了今夜得睡 李使人市藥十貼其色淺碧 用淡薑水滴麻油數點調 服 李疑草藥性獷或使臟腑滑泄併三爲一自試之既 而無他於是取三貼合爲一攜入禁廷授妃請分兩服以 餌是夕嗽止比曉面腫亦消內侍走白天顏絕喜錫金帛 厥直萬緡李雖幸其安而念必宜索方書何辭以對殆亦 死耳命僕俟前賣藥人過邀入坐飲以巨鍾語之曰我見 鄰里服汝藥多效意欲得方倘以傳我此諸物爲銀百兩 皆以相贈不吝曰一文藥安得其直如此防禦要得方當 便奉故只 蚌粉一物新瓦炒令通紅拌青黛少許爾扣 其從來日壯而從軍老而停汰頃見主帥有此故割得之 以其易辦姑籍以度餘生無他長也李給之終身”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은 새로 “滴油散”이라는 처방명을 기재해놓았다. 『醫說』에는 “滴油散”이라는 처방 명이 나오지 않으나 내용 중 처방을 만드는 과정에 “참기름을 몇방울 떨어뜨려 복용한다(滴麻油)”는 데에서 처방명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醫說』에는 일화의 형식으로痰嗽를 치료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에서 『醫說』에 수록된 일화는 생략하고痰嗽를 치료하는 주치 및 구성약재, 복용법 등 만을 요약

111) 上掲書. p.69.

112) 張杲撰. 醫說(影印文淵閣四庫全書 10권 第742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02.

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 중 蜂粉은 『醫說』의 “蜂粉一物新瓦炒令通紅拌”을 동의보감에서는 “蚌粉 新瓦上炒令通紅 放地上出火毒 每半兩”이라 인용하여 용량을 지정하여주었으며, 또한 “放地上出火毒”이라는 구문을 추가해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靑黛는 『醫說』에서는 “靑黛少許”라 하여 용량이 나와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靑黛一錢”으로 용량을 지정하였다. 『醫說』의 “用淡薑水滴麻油數點調服”은 동의보감에서 “以淡薑水滴入麻油數點調服”이라 하여 문구는 다소 바뀌었으나 그 의미는 같게 인용하였다.

● 【玉芝元】 治風熱 痰盛 咳嗽 聲重. 半夏麴六兩 人參 薄荷 白茯苓 白礬枯 南星泔浸焙各三兩. 右爲末 薑汁煮麴糊和丸梧子大 薑湯下五七十丸 『得效』.

【校勘】

『得效』 113)에 “玉芝丸 治風壅痰實 頭目昏眩 咳嗽聲重 咽膈不利 人參(去芦) 乾薄荷 白茯苓(去皮) 白礬(枯過) 天南星(米泔浸, 焙)各三兩 半夏(湯洗七次, 薑汁和作曲)六兩. 上爲末 生薑汁煮面糊丸 如梧子大. 每服三十丸 食後薑湯下. 如痰盛燥熱 薄荷湯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동의보감이 간략화하여 인용하였지만 “治風熱痰盛”이라 하여 『得效』에는 없는 “熱”이라는 글자를 한자 추가하였다. 구성 약재 중 『得效』의 半夏(湯洗七次, 薑汁和作曲), 人參(去芦), 乾薄荷, 白茯苓(去皮), 白礬(枯過), 天南星(米泔浸, 焙)를 동의보감은 半夏麴, 人參, 薄荷, 白茯苓, 白礬枯, 南星泔浸焙로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재 중 半夏는 『得效』에서는 수치법이 적혀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半夏麴이라 수정하여 인용하였으며, 동의보감 雜方門에 半夏麴

을 만드는 법이 따로 수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의 半夏麴은 生薑汁과 白礬을 사용하여 수치는 것으로 『得效』에 나온 法製 방법인 “半夏(湯洗七次, 薑汁和作曲)”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동의보감은 구성 약재의 배열 순서를 용량이 많은 것부터 재배치 하였다. 복용법에서 『得效』는 “三十丸”을 복용한다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五七十丸”을 복용한다고 하였다. 복약시간이 『得效』에는 “食後”라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得效』는 “痰盛燥熱” 할 경우에는 薄荷湯으로 약을 먹는다고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 【澄清飲】 治痰嗽 服他藥不效者. 南星 半夏 並製 蚌粉 知母 貝母 白礬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煎 澄清 徐徐服 『得效』.

【校勘】

『得效』 114)에 “[通治]澄清飲 治諸證痰嗽 服他藥不效者 南星 蚌粉 知母 貝母 半夏 白礬 上各等分 銼散. 每服三錢 水一大盞 生薑五片 去渣澄清 候溫 徐徐吸服 食後臨睡服 小兒亦得效”라 하였다

【考察】

주치는 『得效』의 “治諸證痰嗽”를 “治痰嗽服”으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이 『得效』에서는 6가지 약재를 等分으로 가루를 내서 총 3錢을 취하여 1회 분량으로 사용하였고, 동의보감에서는 6가지 약재를 각 1錢씩하여 煎湯하여 복용하도록 용량과 용법의 수정이 있었다. 동의보감의 煎湯 방법이 『得效』의 약재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더 간편한 대신 총 약재의 용량을 두 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의 조제법에서 『得效』에서는 “水一大盞”이라 하여 물의 용량이 나와 있으나 동의보감에는 물의 용량이 나와 있지 않고 “煎”이라고 간

113)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92.

114) 上揭書. p.94.

략화 시켰다. 복용법에서 『得效』의 “去渣澄清”을 동의보감은 “去渣”를 생략한 “澄清”으로 “徐徐吸服”을 “吸”을 생략한 “徐徐服”으로 간략히 인용하였고, 복용시간 및 부연설명인 “食後臨睡服 小兒亦得效”라는 부분은 인용 시 생략하였다.

● 【三聖丹】 治久痰嗽極效. 半夏製二兩 南星煨一兩 甘草生半兩 以半星二味 爲末 薑汁拌勻蠶作麩 冬十 夏五 春秋七日 取出 再爲末 入甘草末和勻. 竹瀝一椀拌和作餅子焙乾 又將竹瀝沃濕焙乾 如此十數次 以竹瀝盡爲度 再研爲末. 煉蜜調和如餈 臨臥抄一匙於口內嚙化 以竹瀝漱口嚙下 『正傳』.

【校勘】

『正傳』 115)에 “三聖丹 治久咳極效. 天南星(泡劑)一兩 半夏(湯泡七次)二兩 甘草(生用)五錢. 先以星 夏二味研爲細末 用生薑自然汁拌勻 蠶作曲 春秋七日 冬十日 夏五日取出 再同甘草共研爲細末 別取淡竹瀝一碗 將前藥末用竹瀝拌勻作餅子焙乾 又將竹瀝沃濕 又焙乾 如此沃焙十數次 待竹瀝盡爲度 研爲極細末. 用白沙蜜調如餈 每臨臥 抄一匙乾口內嚙下 再用竹瀝漱口咽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正傳』의 “治久咳極效”를 동의보감은 “治久痰嗽極效”라 인용하였다. 『正傳』에서 상기 처방의 분류는 久咳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이 처방을 久嗽에 분류하지 않고 痰嗽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분류한 것은 허준 선생의 주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재 구성은 『正傳』의 半夏(湯泡七次), 天南星(泡劑), 白沙蜜을 동의보감은 각각 半夏製, 南星煨, 煉蜜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약 조제법에서 『正傳』의 “用生薑自然汁拌勻 蠶作曲 春秋七日 冬十日 夏五日取出

再同甘草共研爲細末 別取淡竹瀝一碗 將前藥末用竹瀝拌勻作餅子 焙乾 又將竹瀝沃濕 又焙乾 如此沃焙十數次 待竹瀝盡爲度 研爲極細末. 用白沙蜜調如餈 每臨臥 抄一匙乾口內嚙下 再用竹瀝漱口咽之.”을 동의보감은 “以半星二味 爲末 薑汁拌勻 蠶作麩 冬十 夏五 春秋七日 取出 再爲末 入甘草末和勻. 竹瀝一椀拌和作餅子焙乾 又將竹瀝沃濕焙乾 如此十數次 以竹瀝盡爲度 再研爲末. 煉蜜調和如餈 臨臥抄一匙於口內嚙化 以竹瀝漱口嚙下”로 문구들만 조금씩 다르게 하여 인용하였는데, 『正傳』에서는 “再同甘草共研爲細末”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再爲末 入甘草末和勻.”이라 하여 『正傳』은 甘草와 함께 고운 가루로 만들었고, 동의보감은 甘草는 따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섞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동의보감이 약 조제 방식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藍漆煎元】 治痰嗽. 藍漆二兩 人參 杏仁 胡桃肉各一兩. 右爲末 蜜丸彈子大 每一丸 薑湯 或米飲嚼下 『鄉集』.

【校勘】

『鄉集』 116)에 “藍漆元治咳嗽 藍漆一兩去苗細末胡桃去殼湯浸去膜研人參去蘆細末杏仁湯浸去皮尖雙仁麩炒研各半兩. 右煉蜜和丸如彈子大每服一丸米飲嚼下或以薑湯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증은 『鄉集』에서는 “治咳嗽”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治痰嗽”라 하여 더 구체화 하였다. 구성 약재는 『鄉集』의 藍漆一兩去苗細末, 人參去蘆細末, 杏仁湯浸去皮尖雙仁麩炒研, 胡桃去殼湯浸去膜研을 동의보감은 藍漆, 人參, 杏仁, 胡桃肉으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鄉集』의 1兩을 동의보감은 2兩으로 『鄉集』의

115)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71, 72.

116)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2. 서울. 여강출판사. 1978. p.78.

半兩을 동의보감은 1兩으로 인용하였다. 복용 방법에서 『鄉集』은 “米飲嚼下或以薑湯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薑湯 或米飲嚼下”라 하여薑湯과 米飲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하였다.

● 【安肺散】 治痰嗽 不問新久. 罌粟殼炒黃色 麻黃 甘草炒各二兩 右龜末 每三錢 烏梅一箇 同煎服 『綱目』.

#### 【校勘】

『綱目』 117)에 “安肺散 治痰嗽 不問新舊. 麻黃二兩去節 甘草二兩炒 御米殼四兩去蒂炒黃色. 右爲末 每三錢 水一盞 入烏梅一箇 煎七分 去渣溫服 臨臥下.”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같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는 『綱目』의 御米殼四兩去蒂炒黃色, 麻黃二兩去節, 甘草二兩炒를 동의보감은 罌粟殼炒黃色, 麻黃, 甘草炒로 각각 인용하였다. 御米殼은 罌粟殼의 異名이다<sup>118)</sup>. 『綱目』의 御米殼을 동의보감에서 인용할 때 罌粟殼으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동의보감 내의 약제명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綱目』은 약제의 수치 내용을 용량 뒤에도 쓰지만 동의보감은 수치를 먼저 적고 그 뒤에 약제의 용량을 기재하였다. 약의 煎湯 방법에서 『綱目』은 “水一盞”, “煎七分 去渣溫服”이라 하여 물의 용량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생략하였다. 복약시간을 『綱目』은 “臨臥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생략하였다.

● 【人參散】 痰嗽通用. 半夏麴二錢 人參 桔梗 五味子 細辛 枳殼 赤茯苓 杏仁各一錢 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梅一 水煎服 『丹心』.

#### 【校勘】

『丹心』 119)에 “人參散 治咳嗽痰壅通用. 人參去芦 桔梗 半夏麴 五味子 細辛去葉 枳殼製 赤茯苓去皮 杏仁不去皮各一分 甘草炙半分. 上咬咀 每服一兩 生薑五片 烏梅半箇 水二盞 煎之八分服 食後 一方 無杏仁 烏梅 不用 痰嗽加紫菀 添甘草”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丹心』의 “治咳嗽痰壅通用.”을 동의보감은 “痰嗽通用.”이라 간략화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는 『丹心』에서는 人參去芦, 細辛去葉, 枳殼製, 赤茯苓去皮, 杏仁不去皮, 甘草炙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人參, 細辛, 枳殼, 赤茯苓, 杏仁, 甘草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였다. 약제의 용량에서 半夏麴의 경우 『丹心』은 1分을 사용하였고, 동의보감은 이를 2錢으로 증량하였다. 나머지 약제의 경우 『丹心』의 1分을 동의보감은 1錢으로, 『丹心』의 半分을 동의보감은 5分으로 증량하였고, 『丹心』은 “生薑五片 烏梅半箇”를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入薑五梅一”이라 하여 烏梅의 용량을 늘렸다. 이렇게 용량을 늘린 것은 『丹心』의 이 처방은 다른 처방들에 비해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煎湯 방법에서 『丹心』은 “每服一兩”, “水二盞 煎之八分服”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 약들을 한 첩으로 하여 “水煎服”하는 방법을 택했다. 『丹心』은 복약시간을 “食後”라 기재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인용하지 않았다. 『丹心』의 처방 말미에 “一方 無杏仁 烏梅 不用 痰嗽加紫菀 添甘草”라 하여 加減法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인용하지 않았다.

● 【白圓子】 治風痰嗽 有一種咳嗽 直至頓吐 飲食痰物俱出盡 方小定 此乃肝木剋脾土 風痰壅盛所致. 宜以白元子方作生料[方見風門] 加木香 丁

117) 樓英. 醫學綱目(下冊). 中國. 一中社. 1984. p.1121.  
118)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圖書出版 永林社. 2000. p.727.

119)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14.

香 橘紅 天麻 全蝎 白僵蠶 水煎 和薑汁服『丹心』.

### 11. 乾嗽

○ 乾咳嗽者 無痰有聲 是也. 此證本於氣澁 澁微者 連咳十數聲 方有痰出 澁甚者 雖咳十數聲 亦無痰出 是爲乾咳嗽也『綱目』. ○ 乾咳者 肺中無津液也『入門』. ○ 乾咳嗽 極難治 此係火鬱之證 乃痰鬱火邪在肺中 用苦桔梗以開之 下用補陰降火之劑. 不已則成勞 須行倒倉法. 此不得志者有之用四物湯 加竹瀝 炒黃栢之類『丹心』. ○ 燥痰不出者 用蜜水吐之 蜜煎生薑湯 蜜煎陳皮湯 燒生薑 胡桃方 皆治無痰而嗽者 以辛甘潤其肺也『易老』. ○ 治乾嗽補肺 生地黃二斤洗淨 杏仁二兩 生薑 蜂蜜各四兩 左搗如泥 盛磁器 置飯上 蒸五七度 每於五更挑三匙嚥下『本事』. ○ 又方 白蜜一斤 生薑二斤取汁 先秤銅器知斤兩訖 內蜜復秤知數次內薑汁 以微火煮 令薑汁盡 惟蜜斤兩在則止 每服如棗子大 含化日三『千金』. ○ 乾嗽 宜用瓊玉膏[方見身形] 潤肺散 加味二母丸 訶黎勒丸 抑痰丸[方見痰門].

#### 【校勘】

『綱目』120)에 “乾咳嗽者 無痰有聲是也. 此症本於氣澁 澁微者連咳十數聲方有痰出 澁甚者雖咳十數聲亦無痰出 是爲乾咳嗽也.”로 되어 있다.

『入門』121)에 “乾咳者 肺中 無津液也”로 되어 있다.

『丹心』122)에 “乾咳嗽難治. 此係火鬱之證 乃痰鬱其火邪 在中 用苦梗開之 下用補陰強火之劑 四物加炒白 竹瀝之類 不已則成勞. 此不得志者有志. 倒倉法好.”로 되어 있다.

『綱目』123)에 “補肺法. 地黃二斤生淨洗 杏仁二兩 生薑 蜜各四兩. 右搗如泥 入瓦盆中 置飯上

蒸五七度 每五更 挑三時嚥下.”로 되어 있다.

『千金』124)에 “又方 白蜜一斤 生薑二斤取汁 右二味先秤銅銚兩訖內蜜復秤知數次內薑汁以微火煎今薑汁盡惟有蜜斤兩乃止且服如棗大含一丸日三服禁一切雜食”으로 되어 있다.

『綱目』125)에 『千金』에서 인용하여 “治久嗽方. 白蜜一斤 生薑二斤 取汁. 右二味 先秤銅銚知斤兩訖 納蜜復秤如數 次納薑汁 以微火煮令薑汁盡 惟有蜜斤半在則止 且服如棗大含一丸 日三服. 忌一切雜食”으로 되어 있다.

#### 【考察】

『綱目』 중 “是爲乾咳嗽也”를 爲를 뺀 “是乾咳嗽也”로 인용하였으나 생각 가능한 글자로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丹心』에서는 “乾咳嗽難治”라 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乾咳嗽極難治”라고 강조하여 허준 선생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삽입했다고 생각된다. 이 구문은 『入門』에서咳嗽篇이 아닌 臟腑條辨 항목에 수록되어있는 구문이다. 『丹心』의 “用苦梗開之”는 동의보감에서 “用苦桔梗以開之”로 문맥을 알기 쉽게 풀어서 썼다. “用四物湯 加竹瀝 炒黃栢之類”라는 처방은 『丹心』에서는 “補陰強火之劑”의 바로 뒤에 부연 설명으로 이어서 나오지만, 동의보감은 그 처방을 맨 뒤로 이동 시켜놓았다. 『綱目』 乾咳嗽 항목에 위 구문을 『本事』에서 인용하였다고 쓰여 있으나 『本事』에서 해당 구문을 찾지 못하였다. 동의보감과 『綱目』을 비교하면, 『綱目』에서는 主治가 乾咳嗽 항목에 있어서인지 “補肺法”이라고만 적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治乾嗽補肺”라 하고 있고, 『綱目』의 地黃이라 하고 生地黃임을 뒤에 설명해왔는데, 동의보감에서는 生地黃이라고 바꾸어 동의보감의 다른 처방들과 약제 표기법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했고, 『綱目』의 “搗”를 동의보감에서는 같은 의미인 “搗”로 글자를 바꿔서 사용하였고,

120) 樓英. 醫學綱目(下冊). 中國. 一中社. 1984. p.1135.

121) 李樾. 新敎 編註 醫學入門(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9.

12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8.

123) 樓英. 醫學綱目(下冊). 中國. 一中社. 1984. p.1136.

124) 孫思邈. 千金要翼方.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668.

125) 樓英. 醫學綱目(下冊). 中國. 一中社. 1984. p.1136.

『綱目』의 “入瓦盆中”을 동의보감에서는 “盛磁器”라 하여 사용하는 용기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千金』은 동의보감에서는 『千金』을 인용했다고 했지만, 문헌을 살펴본 바로는 동의보감이 『千金』을 인용한 『綱目』의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천금의 “先秤銅銚兩訖”에서 “兩”은 문맥상 무게를 의미하는 “斤兩”의 聲誤로 보인다. 『綱目』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先秤銅器知斤兩訖”이라 인용하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綱目』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 『綱目』에서 『千金』을 인용하면서 각각 “內”를 “納”으로, “煎”을 “煮”로, “乃”를 “在則”으로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바뀌서 인용한 부분들은 전부 동의보감에서는 『綱目』과 같게 인용하고 있다. 『千金』의 “服如棗大含一丸日三服”을 동의보감에서는 “服如棗子大含化日三”이라 하여 의미는 상통하나 달리 표현하였다. “乾嗽 宜用瓊玉膏[方見身形] 潤肺散 加味二母丸 訶黎勒丸 抑痰丸[方見痰門]”은 인용서가 없고 허준선생이 乾嗽에 사용하는 처방을 선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 12. 血嗽

○ 瘀血咳嗽者 喉間有腥氣 或吐唾血 瘀因打撲傷損而致. 四物湯 加大黃 蘇木 爲末 酒調服 或水煎服 『入門』. ○ 生桃仁七粒 以韭汁送下 最佳 『丹心』. ○ 血嗽 宜服人參百合湯 桑皮散 當歸飲 『諸方』.

### 【校勘】

『入門』 126)에 “瘀血咳 則喉間 常有腥氣 輕者 瀉白散 加生地 山梔 牡丹皮 麥門冬 桔梗 重者 桃仁 大黃 薑汁 爲丸服 或因打損 勞力 傷肺 遇風寒則咳 或見血紫黑色者 四物湯 去芍 加大黃 蘇木 爲末酒調服 利去心肺間瘀血則止 後服人參 養榮湯 調理”로 되어 있다.

### 【考察】

『入門』 중 “輕者 瀉白散 加生地 山梔 牡丹皮 麥門冬 桔梗 重者 桃仁 大黃 薑汁 爲丸服”이라는 瘀血 咳嗽의 처방은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뒤쪽에 나온 “四物湯 去芍 加大黃 蘇木 爲末酒調服”라는 처방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川芎을 빼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술로 복용하여도 되지만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入門』에서는 이 처방을 복용하여 心肺間의 瘀血이 없어지면 그 후에 人參養榮湯을 복용하여 조리한다는 내용이 뒤이어 있으나 동의보감에서 이는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 『人參百合湯』 治勞嗽吐紅. 白朮 白茯苓 百合 阿膠珠 天門冬各一錢 白芍藥 人參 五味子 黃芪 半夏 杏仁各七分 細辛 紅花 桂皮 甘草各三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諸方』.

● 『桑皮散』 治上焦有熱 血壅腥悶 嗽聲連併 氣不得透. 甘草一錢半 薄荷 桔梗 川芎 防風 桑白皮 黃芩 前胡 紫蘇葉 柴胡 赤茯苓 枳殼各八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直指』.

### 【校勘】

『直指』 127)에 “桑皮散治上焦有熱壅血腥悶嗽聲連併氣不得透. 腦荷 北梗 川芎 防風 桑白皮炒 黃芩 北前胡 柴胡 紫蘇 赤茯苓 枳殼製各一分 甘草炙一分半. 右剉細每三錢薑棗煎服或喫梨亦可”로 되어 있다.

### 【考察】

주치는 『直指』의 “壅血腥悶”을 동의보감은 글자의 순서를 바꿔 “血壅腥悶”이라 하였는데 큰 의미의 변화는 없고, 나머지 주치는 같게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直指』에서는 甘草炙,

126) 李梴. 新敎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9.

127)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07.

腦荷, 北梗, 桑白皮炒, 北前胡, 紫蘇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甘草, 薄荷, 桔梗, 桑白皮, 前胡, 紫蘇葉으로 수치와 약재명을 조금씩 변경하여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直指』의 1分半을 동의보감은 1錢半으로 인용하였고, 『直指』의 1分을 동의보감은 8分으로 인용하였다. 전탕 방식은 『直指』에서는 “右剉細每三錢薑棗煎服或喫梨亦可”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이라 하였다.

● 【當歸飲】 因打撲損傷肺氣 咳嗽吐黑血. 大黃 蘇木 生乾地黃 當歸 赤芍藥各等分. 右爲末 每三錢 溫酒 調服 『得效』.

【校勘】

『得效』 128)에 “損嗽當歸飲 治男子因打損負重 女子因勞苦用力而傷肺經 肺經既損 遇風寒則爲咳嗽 或咳血 或至紫黑 宜用此葯去心肺間瘀血 仍灸肺俞 病則蘇. (肺俞穴在三椎下兩方各一寸半) 蘇木 生地黃 當歸 大黃 赤芍藥. 右爲末 酒調服 得利去瘀血即止. 服養榮湯調理.”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에서 『得效』의 “治男子因打損負重 女子因勞苦用力”을 동의보감은 “打撲”으로 간략화하였고 그 뒤의 부분인 “傷肺經 … 病則蘇”를 “損傷肺氣 咳嗽吐黑血”로 간략화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재 중 『得效』의 “生地黃”을 동의보감은 “生乾地黃”으로 인용하고 있다. 나머지 구성 약재는 같다. 『得效』에는 약재의 복용량이 나와 있지 않다. 동의보감에서는 매 복용량을 3錢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처방구성은 동의보감 血嗽 첫 번째에 문장에 인용한 『入門』의 내용과 四物湯에서 白芍藥 대신 赤芍藥을 쓴 것을 제외하면 같다. 복용법도 술로 복용하는 것으로 같고, “得利去瘀血即止”라는 구문과 人參養榮

湯으로 조리한다는 내용 역시 같다. 『世醫得效方』은 1337년 危亦林이 저술한 서적이며, 『醫學入門』은 1575년 李梴이 저술한 서적이다<sup>129)</sup>. 따라서 『醫學入門』이 『世醫得效方』의 구문을 인용하였고 생각된다.

13. 酒嗽

○ 酒性大熱 因傷引飲 冷與熱凝於胃中 不散而成濕 故痰作咳嗽 『保命』. ○ 飲酒多咳嗽 青黛 瓜蒌仁 左爲末 薑汁煉蜜和 丸櫻桃大 常常含化 散肺毒 『丹心』. ○ 酒傷肺成痰嗽 以竹瀝煎紫蘇 入韭汁 就吞瓜蒌杏連丸 又宜蜂薑丸 『入門』.

【校勘】

『丹心』 130)에 “治酒嗽 青黛 瓜蒌 蜜丸嚙 救肺”로 되어 있다.

『入門』 131)에 “痰因酒濕者 蜂薑丸 全因酒者 瓜連丸”으로 되어 있다.

【考察】

『丹心』은 동의보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적응증 설명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였으며 丸藥 조제법과 복용법을 더 자세히 기재하였다. 『入門』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술과 濕으로 인해 생긴 담은 蜂薑丸, 오직 술로만 인해 생긴 담은 瓜連丸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두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술로 인한 痰嗽에 瓜蒌杏連丸을 사용한다고 하고, 또 蜂薑丸을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瓜蒌杏連丸 처방은 아래에 『入門』이 아닌 『丹心』에서 인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 【瓜蒌杏連丸】 治酒痰嗽. 瓜蒌仁 杏仁 黃連 各等分. 右爲末 以竹瀝薑湯煮糊和丸服 『丹心』.

129) 洪元植, 尹暢烈.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243, 373.

130)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2.

131)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8.

128)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93, 94.

【校勘】

『入門』<sup>132)</sup>에 “瓜連丸 瓜蒌仁 杏仁 黃連 各等分 爲末 竹瀝 韭汁 爲丸如 梧桐子大 每三五十丸 紫蘇煎湯 送下 治傷酒痰咳 喘急.”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 酒嗽에서 瓜蒌杏連丸의 인용서적이 『入門』이라 나와 있으나 처방에서는 인용 서적이 『丹心』으로 바뀌어 있다. 『丹心』에서는 상기처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신 『入門』에서는 이 처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 처방의 인용 서적은 『入門』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처방명은 『入門』에서는 “瓜連丸”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瓜蒌杏連丸”이라 하여 처방명에杏仁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入門』에서는 주치가 처방의 맨 뒤에 기재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주치를 구성 약재 앞으로 옮겨서 인용하였다. 주치는 『入門』에는 “治傷酒痰咳 喘急.”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治酒痰嗽.”로 이를 간략화 하였다. 구성약재는 丸을 만들때 『入門』은 “竹瀝 韭汁 爲丸”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韭汁” 대신 “以竹瀝薑湯煮糊和丸服”이라 하였다. 丸藥의 크기를 『入門』은 “如梧桐子大”라 설명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고, 복용법에서 『入門』은 “每三五十丸 紫蘇煎湯 送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蜂薑丸】 治酒痰嗽 及積痰久嗽 留肺脘 粘滯如膠 氣不升降. 便香附 白薑蠶炒 海蛤粉 瓜蒌仁 蜂房 杏仁 神麴各等分. 右爲末 以薑汁竹瀝 入蜜和丸櫻桃大 含化嚥下 『丹心』. 一方 無香附 有茜根 『入門』.

【校勘】

132) 上掲書. p.465.

『入門』<sup>133)</sup>에 “蜂薑丸 茜根 僵蠶 海粉 瓜蒌仁 杏仁 蜂房 神麴 各等分 爲末 薑汁 竹瀝 爲丸 含化 治酒痰嗽 積久如膠 及牙宣腫痛”으로 되어 있다.

【考察】

상기 처방이 『丹心』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入門』에서는 주치가 처방의 맨 뒤에 기재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주치를 구성 약재 앞으로 옮겨서 인용하였다. 『入門』은 주치는 “治酒痰嗽 積久如膠 及牙宣腫痛”이라 되어있는데 동의보감은 “治酒痰嗽 及積痰久嗽 留肺脘 粘滯如膠 氣不升降.”이라 인용하여 “及牙宣腫痛”은 인용하지 않고 대신 積痰久嗽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구성 약재는 『入門』의 茜根 대신 동의보감은 便香附를 사용하고 있으며 처방 말미에 『入門』에서는 便香附 대신 茜根을 쓴다고 기재해놓고 있다. 『入門』의 僵蠶, 海粉을 동의보감은 白薑蠶炒, 海蛤粉이라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各等分”으로 같으며 약 조제방법에서 동의보감은 “入蜜和丸”이라는 구문을 추가하였고 또한 “櫻桃大”라 하여 丸藥의 크기를 지정해주고 있다.

14. 久嗽

○ 乃積痰久留肺脘 粘滯如膠 氣不升降 或挾濕與酒而作 『丹心』. ○ 久嗽 宜蜂薑丸 加味二母丸 人參清肺湯 貝母湯 九仙散 人參款花散 天鼠散 清肺湯 馬兜鈴丸 加味百花膏 潤肺除嗽飲 『諸方』.

【校勘】

『丹心』<sup>134)</sup>에 “久嗽有因積痰留肺 脘中如膠 氣不能升降 或挾濕與酒而作”으로 되어 있다.

【考察】

133) 上掲書. p.465.

134) 陳柱杓.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36.

『丹心』의 “積痰留肺脘中如膠 氣不能升降”을 동의보감에서 각각 “痰久留肺脘粘滯如膠 氣不升降”으로 달리 표현하였지만 의미는 상통한다.

● 【貝母湯】 治諸般久嗽. 貝母薑製 乾薑生 五味子 陳皮 半夏製 柴胡 桂心各五錢 黃芩 桑白皮 各二錢半 木香 甘草各一錢二分半. 右蠶末 每五錢 入製杏仁七箇 生薑七片 水煎服. 一婦 患積年嗽 服此一貼 卽愈 神效 『本事』.

#### 【校勘】

『本事』 135)에 “治諸嗽久不差 貝母湯 貝母一兩 去心薑製半日焙 黃芩生用 乾薑生各一兩 陳皮 五味子各一兩 桑白皮 半夏 柴胡 桂心各半兩 木香 甘草各一分 右爲粗末每服五錢水一盞半杏仁七粒 去皮尖碎之生薑七片同煎至七分去滓熱服 黃師文云戊申冬有蔣姓者其妻積年嗽製此方授之一服差以此治諸嗽卽皆愈”로 되어 있다.

#### 【考察】

처방명을 『本事』에서는 주치 다음에 기재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처방명을 맨 앞으로 옮겨서 기재하였다. 주치는 『本事』의 “嗽久不差”를 동의보감에서는 “久嗽”라고 간결화하여 인용하였다. 구성 약제는 『本事』에서는 貝母一兩去心薑製半日焙, 半夏, 黃芩生用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貝母薑製, 半夏製, 黃芩으로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에서 貝母, 乾薑, 五味子, 陳皮는 『本事』의 1兩을 동의보감은 5錢으로 인용하였고, 黃芩은 『本事』에서는 1兩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은 2錢半으로 용량을 줄였고, 桑白皮는 『本事』에서는 半兩을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은 2錢半으로 용량을 줄였다. 木香과 甘草는 『本事』에서 1分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의보감은 이 용량을 1錢으로 올렸다. 약의 조제법에서 『本事』는 “右爲粗末每服五錢”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右蠶末 每五錢”으로 간략화하였고, 『本事』는 “水一盞半”, “同煎至七分”이라 하여 물의 용량을 표시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本事』의 “杏仁七粒去皮尖碎之生薑七片”은 동의보감은 “入製杏仁七箇 生薑七片”으로 인용하여 더 간략화 하였다. 동의보감에서 말미에 쓰여진 일화는 『本事』의 “黃師文云戊申冬有蔣姓者其妻積年嗽製此方授之一服差以此治諸嗽卽皆愈”를 “一婦 患積年嗽 服此一貼 卽愈 神效”로 간략화한 것인데, 黃師文이 말했다는 것과 戊申年 겨울이라는 시기와, 蔣氏성을 가진 남자의 부인이었다는 사실 등은 치료에 부차적인 정보들로 보아 간략화하고, 한 부인이 여러 해 동안 기침을 하였는데 이 약을 한첩을 먹고 나았다는 사실만을 인용하였다.

● 【九仙散】 治久嗽 乃收功後藥收斂之劑也. 鶯粟殼蜜炒二錢 人參 款冬花 桑白皮 桔梗 阿膠珠 五味子各一錢 貝母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一水煎服 『綱目』.

#### 【校勘】

『綱目』 136)에 “九仙散 治一切咳嗽. 桑白皮 人參 桔梗 阿膠 五味子 烏梅 款冬花各一兩 貝母半兩 粟殼八兩去蒂蜜炒黃 右爲細末 每服三錢 白湯點服 嗽住 止後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은 주치중에 久嗽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收斂之劑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상기 『綱目』에는 “嗽住 止後服”이라 되어있으나 이는 “嗽止 止後服”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동의보감의 “收功後藥”은 “收功 止後藥”의 오식이라는 주장도 있다<sup>137)</sup>. 구성약제는 동의보감이 “入薑三”이라 하여 生薑 3片을 추가하였고, 『綱目』은 粟殼八兩

135) 許叔微. 類證普濟本事方 (影印文淵閣四庫全書 9권 第741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741-400.

136)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20.

137)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p.712.

去蒂蜜炒黃, 阿膠라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각각 鶯粟殼蜜炒, 阿膠珠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鶯粟殼의 경우 『綱目』에서는 8兩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2錢으로 줄였고, 人參, 款冬花, 桑白皮, 桔梗, 阿膠珠, 五味子是 『綱目』은 1兩 사용하였으나 동의보감은 1錢으로 줄였고, 貝母는 『綱目』에서는 半兩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5分으로 줄여서 인용하였고, 烏梅는 『綱目』에서는 1兩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1箇로 줄여서 인용하였다. 약의 복용방법은 『綱目』에서는 “右爲細末 每服三錢 白湯點服”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水煎服”이라하였다.

● 【人參款冬花散】 治久嗽. 鶯粟殼蜜炒黃色一兩人參 款冬花各五錢 知母 貝母 半夏製各三錢 右爲齏末 每五錢 烏梅一箇同水煎服 『綱目』.

【校勘】

『綱目』138)에 “人參款冬花散 治咳嗽久不愈者. 人參 款冬花各五錢 知母 貝母 半夏各三錢 粟殼一兩炒黃色 右爲齏末 每服五錢 烏梅同煎 臨臥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에서 『綱目』의 주치인 “咳嗽久不愈”를 “久嗽”로 간략화 및 동의보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구성약재는 『綱目』에서는 鶯粟殼을 炒黃色으로 범제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蜜炒黃色으로 범제하였으며 『綱目』의 半夏를 동의보감은 半夏製로 인용하였다.煎湯 방법에서 『綱目』은 “右爲齏末 每服五錢”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右爲齏末 每五錢”이라 하여 “服”자가 빠졌으나 내용은 같다. 『綱目』의 “烏梅同煎”은 동의보감에서 “烏梅一箇同水煎服”으로 같은 내용이나 용량을 설정하여 자세히 풀어썼다. 『綱目』은 臨臥服이라 하여 복약 시간이 나와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138)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21.

● 【天鼠散】 治久咳嗽上氣 十年諸藥不差. 蝙蝠除翅足燒令焦 爲末 和飲服之妙 『綱目』.

【校勘】

『綱目』139)에 “百一 治久咳嗽 上氣十年 諸藥治不瘥方. 以蝙蝠除翅足 燒令炒 爲末 飲服之”로 되어 있다.

【考察】

처방명이 『綱目』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天鼠散”이라 처방명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주치는 같게 인용하였다. 약재 및 복용방법도 같다.

● 【清肺湯】 治久嗽 及痰嗽 肺脹嗽. 黃芩一錢半 桔梗 赤茯苓 桑白皮 陳皮 貝母各一錢 當歸 天門冬 梔子 杏仁 麥門冬各七分 五味子七粒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回春』.

【校勘】

『回春』140)에 “清肺湯 治一切咳嗽 上焦痰盛 甘草三分 黃芩去朽心一錢半 桔梗去蘆 茯苓去皮 陳皮去白 當歸 貝母去心各一錢 桑白皮一錢 天門冬去心 山梔 杏仁去皮尖 麥門冬去心各七分 五味子七粒 右剉一劑 生薑棗子煎食後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回春』에는 주치가 “治一切咳嗽 上焦痰盛”이라 되어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治久嗽 及痰嗽 肺脹嗽”라 하여 해수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분류는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구성 약재의 종류는 같으나, 『回春』의 黃芩去朽心, 桔梗去蘆, 茯苓去皮, 陳皮去白, 貝母去心, 天門冬去心, 杏仁去皮尖, 麥門冬去心을 동의보감은 각각

139) 上揭書. p.1140.

140) 龔廷賢. 增補萬病回春(上卷). 서울. 일중사. 1991. p. 121.

수치를 생략하고 黃芩, 桔梗, 赤茯苓, 陳皮, 貝母, 天門冬, 杏仁, 麥門冬으로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當歸의 경우 『回春』의 1錢에서 동의보감은 7分으로 줄여 미세하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나머지 약재의 용량은 같으며, 동의보감은 인용시 약재 배열 순서를 용량 순으로 재배치하여 인용하였다. 『回春』은 “生薑棗子煎”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薑三棗二”라 하여 生薑과 大棗의 용량을 지정해주고 있다. 『回春』은 “食後服”이라 하여 복용 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馬兜鈴丸】 治久嗽神效. 馬兜鈴 半夏 杏仁 各一兩另研 巴豆二十一粒去皮心油另研. 右細末和勻 以皂角煎膏 和丸梧子大 雄黃爲衣 以烏梅湯下十丸 以利爲度 『易老』.

#### 【校勘】

『綱目』 141)에 “馬兜鈴丸 治多年喘嗽不止 大有神功. 馬兜鈴去土 半夏湯洗七次焙乾 杏仁去皮尖麩炒各一兩 巴豆二十一粒去皮油研 已上除巴豆杏仁另研外 餘爲細末 用皂角膏子爲丸 如桐子大 雄黃爲衣. 每十丸臨臥煎烏梅湯下 以利爲度.”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 인용 서적은 『易老』라 하였으나 『易老』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綱目』에 수록되어 있다. 『綱目』의 “治多年喘嗽不止 大有神功”을 간략화하여 동의보감에서는 “治久嗽神效”라고 표현하였다. 『綱目』에는 馬兜鈴去土, 半夏湯洗七次焙乾, 杏仁去皮尖麩炒各一兩, 巴豆二十一粒去皮油研이라 하여 각 약재마다 수치법이 첨가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馬兜鈴, 半夏, 杏仁 各一兩另研, 巴豆二十一粒去皮心油另研으로 약재의 수치를 간략화하거나 생략하였다. 약 조제법에서 『綱目』은 “已上除巴豆 杏仁另研外 餘爲

細末 用皂角膏子爲丸 如桐子大”를 동의보감은 “右細末 和勻 以皂角煎膏 和丸梧子大”라 하여 더 간략화 하였으나 내용은 같다. 『綱目』에서는 복용시간이 “臨臥”라 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으로 나와 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생략되었다.

● 【加味百花膏】 治久嗽不愈. 紫菀 款冬花各一兩 百部根五錢. 右爲末 每三錢 薑三梅一 煮湯調下 食後 『入門』.

#### 【校勘】

『入門』 142)에 “加減百花膏 紫菀 款冬花各一兩 百部五錢 爲末 每三錢 薑三片 烏梅一箇 煎湯 調食後 臨臥 各一服 或蜜丸服 亦好 治久嗽不愈.”로 되어 있다.

#### 【考察】

동의보감에서 상기 처방의 주치에 해당되는 “治久嗽不愈.”라는 부분을 다른 처방들을 설명한 형식과 마찬가지로 형식을 통일하여 가장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인용하였다. 주치 내용은 같게 인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 『入門』의 “薑三片 烏梅一箇”를 “薑三梅一”로 간단히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한편 이는 동의보감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방식으로 통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복용 시간은 식후에 복용 시키는 것은 『入門』과 같으나 『入門』의 “臨臥 各一服”을 생략하여 하루에 총 3번 복용하게 하여 『入門』보다 1회 더 적게 복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入門』의 “或蜜丸服 亦好”는 생략하였다.

● 【潤肺除嗽飲】 治遠年咳嗽 如神. 款冬花 紫菀茸 麻黃 陳皮 石膏粉 桔梗 半夏 桑白皮 枳殼 烏梅肉 鶯粟殼各七分 人參 杏仁 薄荷 生甘草各五分 五味子九粒.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細茶一撮 同煎服 『正傳』.

141)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p.1139.

142) 李樾.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64.

【校勘】

『正傳』<sup>143)</sup>“潤肺除嗽飲 治遠年咳嗽如神. 人參 杏仁 生甘草 薄荷各三分 五味子九粒 款冬花 紫菀茸 麻黃 陳皮去白 石膏煨 桔梗 半夏 桑白皮蜜炙 枳殼麩炒 烏梅 粟殼去穢蜜炙各等分 上細切 加生薑三片 細茶一撮 水一盞半 煎至一盞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같게 인용하였다. 약재의 종류는 같으나 수치를 생략한 경우가 많았는데 『正傳』의 陳皮去白, 石膏煨, 桑白皮蜜炙, 枳殼麩炒, 烏梅, 粟殼去穢蜜炙을 동의보감은 陳皮, 石膏粉, 桑白皮, 枳殼, 烏梅肉, 罌粟殼으로 인용하였다. 石膏煨를 石膏粉으로, 桑白皮蜜炙를 桑白皮로, 枳殼麩炒를 枳殼으로, 粟殼去穢蜜炙를 鶯粟殼으로 동의보감에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人參, 杏仁, 薄荷, 生甘草의 경우 『正傳』에서는 3분을 이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5분으로 늘렸고, 오미자는 9粒으로 같게 용량을 같게 인용하였다. 나머지 약재의 경우 『正傳』에서는 “各等分”한다고 하여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은 7분으로 용량을 새롭게 명시하여 놓았다. 또한 동의보감은 구성 약재의 순서를 용량 순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약 조제법에서 『正傳』은 “上細切 加生薑三片 細茶一撮 水一盞半 煎至一盞服”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細茶一撮 同煎服”이라 하여 내용은 같으나 표현은 달리하였고, 물의 양은 생략하였다.

15. 火嗽

○ 火嗽 有聲痰少 面赤者是 或煩渴引飲 脈洪數 『丹心』. ○ 火嗽 宜貝母散 清肺飲 柴胡枳桔湯 清金降火湯 二母寧嗽湯 抑心清肺丸 玄霜雪梨膏

143)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71.

人參清鎮丸 滋陰清化膏 海青丸 『諸方』.

【校勘】

『丹心』<sup>144)</sup>에 “火者 有聲痰少面赤者 是也.”로 되어 있다.

【考察】

『丹心』에서도 “戴云”이라 하여 戴씨의 말을 인용하여 쓴 말이다. 동의보감이 “或煩渴引飲 脈洪數”라는 구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清肺飲』 治肺熱咳嗽. 前胡 荊芥 桑白皮 枳殼各一錢 知母 貝母 薄荷 赤茯苓 桔梗 紫蘇葉 阿膠珠 杏仁 天門冬 甘草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一 水煎服 『直指』.

【校勘】

『直指』<sup>145)</sup>에 “清肺飲治肺氣上熱咳嗽 前胡 荊芥 桑白皮炒 甘草炙 枳殼製各三分 知母 貝母去心炒 腦荷 赤茯苓 北梗 紫蘇 阿膠炒 杏仁去皮 天門冬去心各半兩 右剉散每三錢薑三片烏梅一枚 食後煎服如更內實與解毒雄黃圓”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直指』에서는 “治肺氣上熱咳嗽”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治肺熱咳嗽”라 하여 간략화하였다. 구성 약재는 『直指』의 桑白皮炒, 貝母去心炒, 腦荷, 北梗, 紫蘇, 阿膠炒, 杏仁去皮, 天門冬去心, 甘草炙를 동의보감은 桑白皮, 貝母, 薄荷, 桔梗, 紫蘇葉, 阿膠珠, 杏仁, 天門冬, 甘草로 바꾸어 인용하였는데, 이는 수치를 생략하거나 동의보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재명으로 변경하여 인용한 것이다. 약 조제법은 『直指』에서는 “右剉散每三錢薑三片烏梅一枚食後煎服”이라 하여 3錢을 취하여 煎湯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144)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02.  
145)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06.

동의보감은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一 水煎服”이라 하여 이 약재들을 1첩으로 하여 水煎服하는 형식으로 바꾸었으며 또한 “食後煎服”이라는 복용시간을 생략하였다. 『直指』의 말미에 “內實與解毒雄黃圓”이라 하였는데, 解毒雄黃圓은 喉閉口噤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雄黃, 鬱金, 芫豆로 구성된 방제이다. 따라서 여기서 “內實”의 의미는 안쪽이 가득 차서 막혀려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 『柴胡枳桔湯』 治傷寒 胸脇痛 潮熱 咳喘 痰盛. 麻黃 杏仁 枳殼 桔梗 柴胡 黃芩 半夏 知母 石膏 乾葛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水煎服 『醫鑑』.

【校勘】

『醫鑑』 146)에 “柴胡枳桔湯 治傷寒胸脇痛 潮熱作渴 痰氣喘. 麻黃 杏仁 桔梗 枳殼 柴胡 黃芩 半夏 知母 石膏 葛根 甘草 上銼一劑 生姜三片 水煎溫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동의보감이 주치를 인용시 『醫鑑』의 “潮熱作渴 痰氣喘”을 “潮熱 咳喘痰盛”으로 인용하면서 갈증이 난다는 내용을 생략하고 해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구성약재는 『醫鑑』의 葛根 대신 동의보감은 乾葛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같다. 『醫鑑』에서는 약재의 용량이 나와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는 麻黃, 杏仁, 枳殼, 桔梗, 柴胡, 黃芩, 半夏, 知母, 石膏, 乾葛는 1錢으로, 甘草는 5分으로 용량을 새롭게 지정해주었다. 약조제법은 『醫鑑』의 “上銼一劑 生姜三片 水煎溫服.”을 “右剉作一貼 入薑三 水煎服”으로 인용하여 표현은 달리하였으나 내용은 같게 인용하였다.

146)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2.

● 『抑心清肺丸』 治肺熱 咳嗽咯血 卽黃連阿膠元也.[方見大便] 蓋黃連 赤茯苓 能抑心火 肺得其清 則嗽自止 『醫鑑』.

【校勘】

『醫鑑』 147)에 “抑心清肺丸 治肺熱咯血咳嗽 兼治血痢. 黃連三兩 赤茯苓三兩 阿膠二兩. 上以上二味爲極細末 水熬阿膠和丸 如梧桐子大. 每服五六十丸 食後米飲送下. 蓋連, 芩有降心火之功 阿膠具保肺金之力 則嗽除血止而病自愈矣.”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醫鑑』의 “治肺熱咯血咳嗽 兼治血痢”를 동의보감은 “治肺熱 咳嗽咯血”이라고 인용하였는데, 해수와 관련된 주치만을 인용한 것이다. 구성 약재는 동의보감 大便門의 “黃連阿膠元”과 같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大便門에 있는 “黃連阿膠元”은 黃連 3兩, 赤茯苓 2兩, 阿膠 1兩으로 구성된 『局方』에서 인용한 처방으로 赤白痢와 熱痢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처방이다. 약재 구성은 『醫鑑』과 같으나 용량이 『醫鑑』의 黃連, 赤茯苓 3兩, 阿膠 2兩과 다소 차이가 난다. 복용량도 『醫鑑』에서는 50-60환이나, 동의보감에서는 30-50환 복용하도록 하였다. “蓋連, 芩有降心火之功 阿膠具保肺金之力 則嗽除血止而病自愈矣.”라는 방제 해설 부분도 동의보감에서는 “蓋黃連 赤茯苓 能抑心火 肺得其清 則嗽自止”로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 『女霜雪梨膏』 治勞嗽久不愈 消痰 止嗽 生津 止咯唾血. 雪梨六十箇去心皮取汁二十鍾 酸者勿用 藕汁十鍾 生地黃汁十鍾 麥門冬煎取汁五鍾 茅根汁十鍾上藥汁重濾去滓 火上煎煉 入蜜十六兩 飴糖八兩 柿霜八兩 薑汁半盞 火上再熬如稀糊則成膏矣 每服五三匙 『醫鑑』.

147) 上揭書. p.113.

【校勘】

『醫鑑』 148)에 “玄霜雪梨膏 生津止渴 除咯血吐血 及治勞心動火 勞嗽久不愈 消痰止咳 清血歸經. 雪梨六十箇(去心,皮,爲汁三十鍾,酸者不用) 藕汁十鍾 新鮮生地黃(搗取汁)十鍾 麥門冬(搗爛煎汁)五鍾 蘿蔔汁五鍾 茅根汁十鍾. 上六汁 再重濾去渣 將清汁再入火煎煉 入蜜一斤 飴糖半斤 柿霜半斤 薑汁一盞 入火再熬如稀糊 則成膏之. 如血不止 咳嗽 加側柏葉搗汁一鍾 韭白汁半鍾, 茜根汁半鍾 俱去渣 入前汁內 煎成膏服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동의보감이 勞嗽와 관련된 부분인 “治勞嗽久不愈”를 가장 앞으로 가져왔다. “治勞心動火”, “清血歸經” 등 나머지 주치들은 간략화하였다. 구성 약재는 『醫鑑』의 雪梨六十箇(去心,皮,爲汁三十鍾,酸者不用), 生地黃(搗取汁)十鍾, 麥門冬(搗爛煎汁)五鍾을 동의보감은 雪梨六十箇去心皮, 生地黃汁十鍾, 麥門冬煎取汁五鍾으로 수정하였다. 약재 용량은 雪梨의 경우 16개로 같으나 즙을 취하는 용량이 『醫鑑』은 20鍾이라하였고, 동의보감은 30鍾이라 하여 더 많은 즙을 취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 蜜, 飴糖, 柿霜의 용량은 같지만 단위가 『醫鑑』에서는 斤 단위를 사용하였고, 동의보감은 이를 兩 단위로 환산하여 인용하였다. 薑汁은 『醫鑑』은 1盞을 쓰나 동의보감은 半盞을 사용한다고 하여 용량을 줄였다. 약조제법에서 『醫鑑』의 “將清汁再入火煎煉”를 동의보감은 “火上煎煉”이라 간략히 인용하였다. 『醫鑑』의 “入火再熬如稀糊”는 동의보감에서는 “火上再熬如稀糊”라 하여 표현은 달리하였으나 같은 내용으로 인용하였다. 1회 복용량이 『醫鑑』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는 3-5수저로 명시하고 있다. 『醫鑑』에서는 그 뒤에도 피가 그치지 않고 기침을 하면 側柏葉, 韭白汁, 茜根汁을 더 넣어서 쓴다는 내용이 있으나

148) 上掲書. p.113.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人參清鎮丸】 治熱 止嗽 消痰 定喘. 柴胡 人參各一兩半 生黃芩 半夏 甘草各七錢半 麥門冬 三錢 陳皮 五味子各二錢 青黛六錢. 右末 水糊和丸 梧子大 白湯下三五十丸 『正傳』.

【校勘】

『正傳』 149)에 “清鎮丸 治上焦吐 頭痛發熱 有汗脈弦. 柴胡二兩(去芦) 黃芩七錢五分 甘草五錢 青黛二錢五分 人參五錢. 上爲細末 薑汁浸蒸餅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五十丸 生薑湯送下 食後服.”으로 되어 있다.

【考察】

『正傳』은 “清鎮丸”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人參清鎮丸”이라 처방명을 바꾸어 인용하였다. 주치는 『正傳』에서는 “治上焦吐 頭痛發熱 有汗脈弦”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治熱 止水 消痰 定喘”이라 하여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구성약재는 동의보감이 半夏 7錢半, 麥門冬, 陳皮, 五味子 2錢을 加味하여 인용하였으며 『正傳』의 柴胡二兩(去芦), 黃芩을 동의보감은 柴胡, 生黃芩으로 수치를 달리하여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柴胡의 경우 『正傳』에서는 2兩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1兩半으로 인용하였고, 人參의 경우 『正傳』에서는 5錢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1兩半으로 인용하였고, 甘草의 경우 『正傳』은 5錢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7錢半으로 되어있고 青黛의 경우 『正傳』은 2錢5分으로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6錢으로 인용하였다. 약의 조제법은 『正傳』은 “薑汁浸蒸餅爲丸”이라 하여 생강즙으로 丸을 만들었으나 동의보감은 “水糊和丸”이라 하여 물로 丸을 만들었다. 복용방법은 『正傳』은 “生薑湯送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白湯下”라 하였

149) 虞博.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89.

고, 복용량은 『正傳』을 “五十丸”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三五十丸”이라 하였다. 복용시간은 『正傳』에서는 “食後服”이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滋陰清化膏] 止咳嗽 清痰火 滋化源 肺腎乃人身之化源也. 生地黃 熟地黃並酒浸 天門冬 麥門冬各二兩 黃柏鹽酒炒一兩半 白茯苓 山藥 枸杞子 白芍藥酒炒 知母鹽酒炒 玄參 薏苡仁炒各一兩 五味子七錢 甘草生五錢. 右爲末 蜜丸彈子大 每一丸 空心 嚙化 嚙下. 痰嗽甚 加陳皮 貝母各一兩 『回春』.

【校勘】

『回春』 150)에 “陰虛火動而微嗽者 緩則治其本也 滋陰清火膏 清痰火化滋源肺腎乃人身之化源. 生地黃酒洗 熟地黃酒浸 天門冬去心 麥門冬去心 各一兩 白茯苓去皮一兩 山藥炒一兩 枸杞子 白芍藥酒炒各一兩 五味子七錢 黃柏鹽酒炒一兩 知母鹽水炒 玄參 薏苡仁炒各一兩 甘草生五錢. 有盜汗加黃芪蜜炒七錢 痰嗽甚加陳皮貝母各一兩 右爲細末煉蜜爲丸如彈子大每服一丸空心津液嚙化嚙下.”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동의보감이 『回春』을 인용하면서 『回春』의 “清痰火化滋源肺腎乃人身之化源”을 “清痰火滋化源 肺腎乃人身之化源也”라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化”자와 “滋”자의 순서를 바꿔서 인용했는데, 동의보감의 경우 한글로 해석하면, “담화를 없애며, 변화의 근원을 기른다. 폐신이 변화의 근원이다”라고 해석이 된다. 구성 약재는 『回春』의 熟地黃酒浸, 熟地黃酒浸, 天門冬去心, 麥門冬去心, 黃柏鹽酒炒, 白茯苓去皮, 山藥炒, 知母鹽水炒를 동의보감은 生地黃, 熟地黃並酒浸, 天門冬, 麥門冬, 黃柏鹽酒炒, 白茯苓, 山藥, 知母

鹽酒炒라 하여 수치를 간략화하거나 변경하여 인용하였다. 약재의 용량은 生地黃,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의 경우 『回春』에서는 1兩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2兩으로 증량하여 인용하였고, 黃柏의 경우 『回春』에서는 1兩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1兩半으로 증량하여 인용하였고 나머지 약재는 같게 인용하였다. 약 조제법에서 『回春』은 “煉蜜爲丸”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蜜丸”이라 간략화하였다. 약 복용법에서 『回春』은 “津液嚙化嚙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嚙化嚙下”라 하여 내용은 같지만 간략화하였다. 加減法에서 『回春』의 “有盜汗加黃芪蜜炒七錢”이란 구문은 생략했는데, 그 뒤에 “痰嗽甚加陳皮貝母各一兩”이란 구문은 인용하였다. 盜汗보다 痰嗽의 加減法을 보다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 [海青丸] 治火鬱嗽 及肺脹氣急息重. 訶子皮 海蛤粉 瓜蒌仁 青黛 半夏製 便香附各一兩. 右爲末 以薑汁浸蒸餅和丸菘豆大 薑湯下三五十丸 『丹心』.

16. 夜嗽

○ 夜間咳嗽屬陰虛 宜降陰分化 『入門』. ○ 陰分嗽者 多屬陰虛 治之用知母止嗽 勿用生薑 以其辛散故也 『丹心』. ○ 凡夜嗽 久嗽 多屬腎氣虧損 火炎水涸 或津液涌而爲痰. 須用六味地黃元[方見虛勞] 加黃柏 知母 天門冬 貝母 橘紅 以滋化源 滋陰降火湯[方見火門]亦佳 『回春』. ○ 夜嗽 宜用滋陰清化膏方見上 麻黃蒼朮湯 『諸方』.

【校勘】

『丹心』 151)에 “陰分嗽者 多屬陰虛治之.”로 되어 있다.

『回春』 152)에 “午後之夜嗽多者屬陰虛也.”, “皆

150)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上卷). 서울. 일증사. 1991. p.207.

151)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8.

152)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上卷). 서울. 일증사. 1991. p.122, 124.

是勞力酒色內傷或憂愁鬱結陰虛火動而嗽者滋陰降火湯一切久嗽不止者”，“大抵久嗽者多屬腎氣虧損火炎水涸或津液湧而爲痰者乃腎臟爲患也須用六味地黃丸壯腎水滋化源爲主以補中益氣湯養脾土生肺腎爲佐久之自愈。”로 되어 있다.

【考察】

『丹心』에는 “陰分嗽者 多屬陰虛治之”까지만 나왔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그 뒤에 이어 “用知母止嗽 勿用生薑 以其辛散 故也”라는 구문을 추가하였다. 『回春』에 있는 내용 중 “乃腎臟爲患也” 등은 생략하여 더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치료 처방은 『回春』에서는 六味地黃丸을 주로하고, 補中益氣湯을 佐로 하라고 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六味地黃湯에 黃栢, 知母, 天門冬, 貝母, 橘紅을 加한 처방을 소개하고 있고, 滋陰降火湯 또한 좋다고 하였다. 여기에 나온 六味地黃湯 加味方은 허준 선생이 六味地黃湯에 黃栢, 知母, 天門冬, 貝母, 橘紅의 滋陰清熱 祛痰하는 藥을 가미하여 새롭게 만든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처방이다<sup>153)</sup>.

● 【麻黃蒼朮湯】 治秋冬夜嗽不絕 至曉方緩 口苦 胸痞 脇痛 痰唾涎沫 不進飲食. 麻黃八錢 蒼朮五錢 黃芪一錢半 草豆蔻 柴胡 羌活各五分 防風 當歸梢 生甘草各四分 炙甘草 黃芩各三分 五味子十五粒. 右剉分作二貼 水煎服 『東垣』.

17. 天行嗽

○ 時令不正 人多感冒咳嗽 宜人參飲子 一服散『得效』. ○ 四時感冒咳嗽 宜服參蘇飲[方見寒門] 『回春』.

【校勘】

『回春』<sup>154)</sup>에 “參蘇飲 治四時感冒”로 되어 있다.

153) 金久永. 病因論. 서울. 도서출판 善. 2001. p.334  
154)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上卷). 서울. 일증사. 1991. p.120.

【考察】

동의보감이 『回春』을 인용하면서 “四時感冒”에 “咳嗽”라 하여 “咳嗽”란 문구를 추가하여 인용하였으며 “四時感冒”와 “參蘇飲”의 위치를 바꾸어 인용하였으나 큰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 【人參飲子】 治天行 咳嗽 痰盛 寒熱. 人參 桔梗 五味子 赤茯苓 半夏各一錢半 枳殼 甘草各七分. 右剉作一貼 薑五 水煎服. 寒暑至交 氣成人衣厚作壅 忽痰盛微熱 此藥最宜 若作感冒 發其汗 必成大病 此方佳處 在赤茯苓能導心熱 枳殼能疏肺癰 故易爲效 『丹心』.

【校勘】

『丹心』<sup>155)</sup>에 “人參飲子 治痰嗽 寒熱 壅盛. 人參去芦 桔梗 半夏 五味子 赤茯苓 白朮各一兩 枳殼 甘草炙各半兩. 上咬咀 每服三錢 水一盞 薑五片 煎七分 空心服 治寒壅者 加杏仁 不去皮 紫蘇 各半兩”으로 되어 있다.

【考察】

주치는 『丹心』의 “治痰嗽 寒熱 壅盛”을 동의보감은 “治天行 咳嗽 痰盛 寒熱”이라 하여 “天行”을 추가하였다. 구성 약제는 동의보감이 『丹心』의 약제 중 白朮은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丹心』의 人參去芦, 甘草炙는 동의보감이 각각 人參, 甘草로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은 『丹心』의 1兩을 동의보감은 1錢半으로, 『丹心』의 半兩을 동의보감은 7分으로 줄여서 인용하였으며 『丹心』에서는 “上咬咀 每服三錢 水一盞 薑五片 煎七分 空心服”이라 하여 전체 약제를 가루내어 3錢씩을 취하여 복용도록 되어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이 약제를 한첩으로 하여 “水煎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寒暑至交 氣成人衣厚作壅 忽痰盛微熱 此藥最宜 若作感冒

155)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214.

發其汗 必成大病 此方佳處 在赤茯苓能導心熱 枳殼能疏肺癰 故易爲效”는 이 처방에 대한 설명인데, 『丹心』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문장으로 동의보감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 【一服散】 治時行暴嗽. 大半夏三箇 杏仁七箇 鶯粟殼二箇 烏梅二箇 阿膠二片 生薑十片 紫蘇十葉 甘草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得效』.

#### 【校勘】

『得效』 156)에 “一服散 治咳嗽. 阿膠二片 生姜十片 大烏梅二箇 甘草一錢 紫蘇十葉 杏仁(去皮尖)七箇 大半夏三箇(泡) 鶯粟殼三箇(炙). 上銼散. 水一碗 煎至六分 去渣臨臥服.”으로 되어 있다.

#### 【考察】

『得效』의 주치 “治咳嗽”를 동의보감은 “治時行暴嗽”라 하여 해수 중에서 더 세분화 하였다. 구성 약제에서 『得效』의 大半夏三箇(泡), 杏仁(去皮尖), 鶯粟殼三箇(炙), 大烏梅二箇를 동의보감은 大半夏, 杏仁, 鶯粟殼, 烏梅라 하여 수치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약제의 용량은 鶯粟殼의 경우 『得效』에서는 3箇라 되어있고, 동의보감은 2箇라 되어있다. 나머지 약제의 용량은 같게 인용하였다. 약 조제법에서 『得效』는 “水一碗 煎至六分”이라 하여 물의 양이 기재되어있으나 동의보감은 “作一貼 水煎服”이라 되어있다. 『得效』는 “臨臥服”이라 하여 복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은 이를 생략하였다.

### IV. 고찰

16종 해수 부분에서 인용 서적을 인용 시 元 서적을 문구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한 문장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간략화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한 문장들이었다.

인용 서적의 원문 인용 형식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 둘째로 원문 중 일부가 허준 선생에 의해 첨삭하여 인용한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醫鑑』의 “傷暑咳者 脈數 煩熱引飲 口燥 或吐涎沫 聲嘶咯血”이라는 문장을 동의보감 熱嗽에서 그대로 인용한 경우인데, 16종 해수에서는 이 한 문장 외에 다른 문장들은 모두 인용시 수정이 가해졌다. 두 번째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예로는 『丹心』의 “好色之人 元氣虛 咳嗽不愈 瓊玉膏”를 동의보감 “勞嗽”부분에서 인용하면서 “弱”, “宜”, “治虛勞乾咳嗽最捷”등의 구문이 추가된 “好色之人 元氣虛弱 咳嗽不愈 宜瓊玉膏 治虛勞乾咳嗽最捷”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 처방의 구성 약제를 인용시에 수치법, 약 조제법, 전탕법, 복약법을 생략하거나 간략화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예로 “滋陰清火膏”는 구성 약제에서 『回春』의 熟地黃酒浸, 天門冬去心, 麥門冬去心, 黃栢鹽酒炒, 白茯苓去皮, 山藥炒, 知母鹽水炒를 동의보감은 각각 生地黃, 熟地黃並酒浸, 天門冬, 麥門冬, 黃栢鹽酒炒, 白茯苓, 山藥, 知母鹽酒炒라 하여 수치를 간략화하거나 변경하여 인용하였다. 약 조제법에서 『回春』은 “煉蜜爲丸”이라 하였고 동의보감은 “蜜丸”이라 간략화하였다. 약 복용법에서 『回春』은 “津液嚙化嚥下”라 하였으나 동의보감은 “嚙化嚥下”라 하여 내용은 같지만 간략화하였다. 이는 동의보감 湯液序例에 修製法, 湯散丸法, 煮藥法, 服藥法 등에 수치법, 약 조제법, 전탕법, 복약법을 자세히 기재해 놓아 처방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인용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드물지만 필요한 경우 동의보감이 인용서적에 없던 수치를 추가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補肺湯”의 경우 『丹心』의 “桑白皮”를 동의보감에서는 “桑白皮蜜炒”로 炮製를 追加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동의보감은 단순히 의방서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데만 그친 것이 아니

156)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93.

라 허준 선생의 주견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의보감은 처방을 인용 시에 동의보감의 형식에 맞게 재배치하여 인용하였다. 처방명 다음 먼저 주치를 수록하였으며, 그 후 약재를 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한 후 약 조제법 및 복용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예로 동의보감 해수문 痰嗽에 나오는 “滴油散”의 경우 원서적인 『醫說』에는 처방명이 나오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 처방명을 새로 지정하였다. 寒嗽에 나오는 “半夏溫肺湯”은 원 서적인 『入門』에서는 약재가 먼저 배치되고 그 뒤에 주치증이 배치되었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인용시 주치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약재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風嗽의 款冬花散의 경우 『得效』에서는 약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약재 순서가 섞여 있으나, 동의보감은 약재 배열 순서를 용량순으로 재배치하여 인용하였다. 16종 해수 부분의 다른 모든 처방들은 약재 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으나 예외적으로 “黃連化痰丸”은 다른 처방과는 반대로 약재 용량이 적은 것부터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星香丸”도 약재의 용량순으로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 둘은 丸劑로서 약재 종류가 각각 4개 씩으로 간단하여 굳이 용량순으로 배치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은 각 처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약물을 가미하거나 기존 약물을 증감하고 있다.

먼저 약물의 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동의보감 鬱嗽의 淸火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丹心』에서는 “貝母 杏仁 青黛”라 하여 약재의 종류는 기재하고 있으나 용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貝母一兩 杏仁五錢 青黛三錢”으로 각각의 용량을 지정해 주고 있다.

또 동일한 처방에서 다른 약물과 양적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약물의 경우에도 처방의 적용증에 따라 임의로 용량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 예로 勞嗽의 加味人參紫菀散을 보면 원 서적인

『直指』에서는 “人參 北五味子 紫菀茸 陳皮 貝母去心 紫蘇葉 桑白皮炒 白茯苓 杏仁去皮炒 甘草炙各三分 加川芎 半夏麴各一兩 阿膠炒酥半兩”으로 加味 약물에서 약물의 용량이 3分과 1兩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人參 五味子 紫菀茸 陳皮 紫蘇葉 貝母 桑白皮 白茯苓各一錢 杏仁 甘草各七分半 加川芎 半夏麴各一錢 阿膠珠五分. 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로 1錢과 5分으로 약물의 용량을 현격하게 줄였다.

이것은 허준 선생이 임상에서 처방의 유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준 선생은 가능한 한 그 내용의 원래 출전을 인용 서적에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용하는 원문의 경우 원래 출전의 서적보다는 한 번 인용되어 수정된 문장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동의보감 勞嗽 부분의 “好色之人 元氣虛弱 咳嗽不愈 宜瓊玉膏 治虛勞乾咳嗽最捷 『丹心』”은 『丹心』과 『正傳』의 내용을 봤을 때 (『丹心』 157)에 “好色之人 元氣虛 咳嗽不愈 瓊玉膏”로 되어 있다. 『正傳』 158)에 “好色之人 元氣虛弱 咳嗽不愈 瓊玉膏最捷”으로 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正傳』에서 『丹心』을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고, 인용서적은 『丹心』이라 기재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허준 선생이 기존의 여러 의학 서적들을 비교 고찰하여 동의보감의 저술에 임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의보감 해수문에서는 다른 서적 인용 시 咳嗽 부분에서만 인용하지 않고 喘症 및 積熱 부분에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서적에는 久嗽로 분류된 해수를 동의보감은 痰嗽에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入門』의 “加減三拗湯”의 경우에, 『入門』에서는 咳嗽의 처방이 아

157) 陳柱杓.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36.

158)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8.

닌 喘症에 사용되었던 처방이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주치를 咳嗽로 바꿔 인용하였다. 또한 熱嗽에 사용한 “人參瀉肺湯”의 경우 『入門』의 積熱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이다. “三聖丹”의 경우 『正傳』에서는 久咳로 분류되어있는 처방이나 동의보감은 이 처방을 久嗽에 분류하지 않고 痰嗽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다른 분류에서도 처방을 인용해 온 것은 허준 선생의 주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 食積嗽 부분의 “一方 三補丸[芩連栝也] 加二母[知母 貝母]爲末 水丸椒核大 而竹瀝藕汁 吞之『丹心』”는 인용 서적이 『丹心』이 아닌 『正傳』으로 정정해야 마땅하며 “瓜萸杏連丸”의 경우 인용 서적이 『丹心』이 아닌 『入門』으로 정정해야 마땅하다. 동의보감 鬱嗽 부분의 “卽火嗽甚者 乾咳而無痰 乃腎水焦枯 邪火獨炎於肺 宜瀉白散[方見五藏] 清化丸 訶黎勒丸 霞天膏[方見吐門]”는 인용 서적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이는 『入門』을 인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허준 선생의 자주적인 저술 태도로 인하여 조선 중기 의학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중국의학 일변도에서 독자적인 조선 의학의 모습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허준 선생은 중국의 역대 의서들을 인용하면서 단편적인 내용의 재편집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민족 의학에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易老保命集』은 원서를 찾지 못하였고, 『濟生方』은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허준이 제시한 의서를 찾았음에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장이 다소 있었던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 V. 결론

동의보감의 원문과 인용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동의보감 해수문 16종 해수의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16종 해수 부분에서 인용 서적을 인용 시 원서적을 문구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한 문장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간략화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한 문장들이었다.
2. 처방을 인용시에 동의보감의 형식에 맞게 재배치하여 인용하였다. 처방명 다음 먼저 주치를 수록하였으며, 그 후 약재를 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한 후 약 조제법 및 복용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3. 각 처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증상에 따라 새로운 약물을 가미하거나 기존 약물을 증감하고 있다.
4.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준 선생은 가능한한 그 내용의 원래 출전을 인용 서적에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용하는 원문의 경우 원래 출전의 서적보다는 한번 인용되어 수정된 문장을 인용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5. 동의보감 해수문에서는 다른 서적 인용 시 咳嗽 부분에서만 인용하지 않고 喘症 및 積熱 부분에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서적에는 久嗽로 분류된 해수를 동의보감은 痰嗽에 인용하기도 하였다.
6. 동의보감 食積嗽 부분의 “一方 三補丸[芩連栝也] 加二母[知母 貝母]爲末 水丸椒核大 而竹瀝藕汁 吞之『丹心』.”는 인용 서적이 『丹心』이 아닌 『正傳』으로 정정해야 마땅하며 瓜萸杏連丸의 경우 인용 서적이 『丹心』이 아닌 『入門』으로 정정해야 마땅하다.

## 참고문헌

가. 단행본

1. 龔廷賢. 古今醫鑑(中華醫書集成 第26冊 綜合類5).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2. 龔廷賢. 增補萬病回春(上卷). 서울. 일지사. 1991.

3. 金久永. 病因論. 서울. 도서출판 선. 2001.
  4.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기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7.
  5. 董宿. 方賢. 明清中醫名著叢刊 奇效良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6. 樓英. 醫學綱目(下冊). 중국. 一中社. 1984.
  7. 孫思邈. 千金要翼方. 서울. 杏林出版社. 1976.
  8.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圖書出版 永林社. 2000.
  9. 沈金鰲. 明清中醫名著叢刊 雜病原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0. 楊士瀛. 仁齋直指(影印文淵閣四庫全書 12권 第744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1. 虞搏.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25冊 綜合類 4).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12. 王碩. 易簡方. 中醫古籍出版社. 1994.
  13.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9冊 方書類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14.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2. 서울. 여강출판사. 1978.
  15. 이경순 안덕균 신민교 김창민. 완역 중약대사전 10.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16.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17.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8. 李梴. 新教 編註 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9. 張杲撰. 醫說(影印文淵閣四庫全書 10권 第742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0. 全國韓醫科大學 肺系內科學教室.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도서출판 한 문화사. 2002.
  21. 정우열. 한송 정우열교수 정년기념 한송논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문회. 2003.
  2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3.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3.
  24.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3.
  25.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6.
  26. 陳柱杓.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27. 許叔微. 類證普濟本事方 (影印文淵閣四庫全書 9권 第741冊).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8. 許浚.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29. 許浚. 東醫寶鑑(雜病篇.上). 서울. 新宇文化社. 2004.
  30. 許浚. 東醫寶鑑(第一卷 內景篇). 서울. 동의과학연구소. 2002.
  31. 洪元植. 尹暢烈.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 나. 논문
32. 金洛必. 『東醫寶鑑』의 철학적 기초. 제3의학. 1997;2(2):419-434.
  33. 김호. 許浚의 「東醫寶鑑」 研究. 한국과학사학회지. 1994;16(1):3-30.
  34.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1;5:137-150.
  35. 孫弘烈. 「東醫寶鑑」 編纂의 歷史的 背景. 龜岩學報. 1991;1:28-32.
  36. 양준석, 고희곤, 진재호, 한웅, 정상훈, 김호, 이동주, 이광규. 東醫寶鑑 부종편의 원문과 인용 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4):943-952.
  37. 尹暢烈. 東醫寶鑑의 編纂動機와 特徵에 對한 考察. 龜岩學報. 1996;4:33-42.
  38. 이철용. 동의보감 이본들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문집. 1992;20:5-39.
  39. 張文宣. 《東醫寶鑑》이 中國醫學에 미친 影響. 龜岩學報. 1993;3:30-39.
  40. 전영세, 원진희, 이건업. 東醫寶鑑에 인용된

黃帝內經 素問 · 靈樞에 대한 考察. 한국전통의 학지. 2000;10(2):31-114.

41. 최정우, 국윤옥, 정한솔, 이광규. 東醫寶鑑 癰疽論(上)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04;18(3):627-645.

42. 하정용. 內醫院字本 研究의 諸問題 - 『東醫寶鑑』 研究 를 위한 先行課題-. 醫史學. 2008;17(1):23-36.

43.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對한 考察 -出生과 家系를 中心으로. 龜岩學報. 1991;1:73-89.

44. 許程. 「東醫寶鑑」의 保健史的 研究. 龜岩學報. 1992;2:67-94.

45. 許程. 中央아시아 醫學과 東醫寶鑑. 龜岩學報. 1996;4:49-57.

46. 許津, 朴贊國.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6;9:301-318.

47. 許津, 洪元植. 東醫寶鑑의 變證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90;13:345-425.

#### 다. 학위논문

48. 姜延錫.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 鄉藥本草의 處方用法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9.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50. 金滯.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學論.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51. 朴慶連. 『東醫寶鑑』의 書誌學的 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52. 梁榮垞.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53. 李炳國. 東醫寶鑑 耳·鼻·口舌·牙齒·咽喉門의 黃帝內經 引用部分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54. 鄭錫基. 『東醫寶鑑 · 咳嗽門』의 學術적 특징에 對한 高찰.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라. 신문

55. 孫弘烈. 許浚의 '東醫寶鑑'과 한의학의 발전. 한의신문 제1658호, p.14, 2009년 7월 6일.